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제12회 전국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 구 분  | 내 용   |
|------|---|
| 제목   | 아름다운 고백   |
| 수상내역 | 우수상(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사장상)  |
| 작가   | 채재우   |
| 공모분야 | 시나리오  |
| 장르   | -   |
| 소재   | 연제리 모과나무  |
| 시놉시스 | <p>나무 병원을 운영하는 철수는 어느 날 회사로 날아온 발신인 없는 한통의 편지를 받는다. “이제 당신에 대한 추억을 돌려 드립니다...” 라는 짧은 글귀와 함께 아버지의 회사일 때문에 일년간 잠시 살았던 청원에서의 중학교 졸업반 시절 친구들과 찍은 사진 한 장만 들어 있을뿐 누가 보낸 것인지 아무런 단서도 없는 편지 한 통.</p> <p>대학 산악회 동아리 시절부터 철수를 짝사랑 해왔고, 그 때문에 철수의 옆집으로 이사를 온 수미 역시 그 여학생이 누군지 궁금하기만 하다. 누군가가 선배를 되게 짝사랑 했을 거라는 수미의 말에 기억을 더듬어 보지만 철수는 전혀 짐작이 되지 않는다.</p> <p>사진속- 철수 뒤에 서있는 여학생이 아니냐는 수미의 물음에 철수는 쓸쓸히 웃으며 절대로 영희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이름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겪었던 여러糗곳은 사연들을 들려준다.</p> <p>첫출석을 부를때 두 사람의 만남, 그리고 체육 시간에 아이들의 장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은 짝이 되어 포크댄스를 배웠던 사건등... 내성적이고 말이 없던 영희로써는 같은 반이었던 중3 시절이 내내 건디기 힘들었을거라고. 오히려 이름 때문에 영희가 자신을 참 많이도 미워 했다는 얘기를 들려준다. 그런 철수에게 수미는 오히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숨기려 일부러 미워 하는척 한것이 아닐까라고 얘기해 보지만 철수는 피식 웃고 만다. 자신은 중학교 시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인기 없는 평범한 아이였다고....</p> <p>그게 선배 매력이야, 그 매력 때문에 대학교때 누군가가 철수 선배를 아주 많이 짝사랑했다고 얘기하는 수미. 웃으며 왜 자기 앞에 나타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는 철수에게 수미는 용기가 없어서라고 대답한다.</p> <p>(-중략-)</p> |

### #1. 연제리 모과나무 (1994년 청원)

눈 내리는 저녁 고즈넉이 눈속에 서있는 적막한 모과나무,  
그 나무 아래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철수(16)**  
점점 더 훑날리는 눈발.  
담담한 얼굴로 내리는 눈발을 바라보고 있는 철수.  
땅거미 깔리며 점점 어둠이 내려 앉으면 그제서야  
파란색 보온병을 품에서 꺼내 모과나무 밑동에 가지런히 내려 놓는다.  
쓸쓸한 빛으로 서서히 걸음을 옮기는 철수.  
내리는 눈발속에 곧 묻혀져 버리는 철수의 발자국.

### #2. 타이틀 (2015년 서울)

(가지 곳곳에 병들은 기색이 완연한 당산나무. 그 나뭇가지 위에 올라서서 여기저기  
수간 주사를 놓고 있는 **철수(37)**와 **유현(30)**. 그 나무 아래에서 걱정스런 빛으로 나  
무를 올려다 보고 있는 마을 주민들)  
(수미(35)의 디자인실, 전화를 걸고 있는 수미. 전화기가 꺼져 있으니 메시지를 남기  
라는 멘트.)  
(당산나무 아래- 주민들에게 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철수. 고마운, 또는 근심스런  
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주민들.)

### #3. 달리는 차 안

유현 (운전하며) 살아 날까요?  
철수 정성 다 했으니까 이제 자기가 얼마나 살아날 의지를 가지고 있  
는지에 달린거지 뭐. ! (보곤) 왜 웃어?  
유현 아직도 적응이 안되서요, 꼭 사람 다루는거 같아서. (전화벨. 받는)  
네 여보세요. ....아 이대리님. 끝나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사장님 핸드  
드폰이요?

주머니에서 핸드폰 꺼내는 철수. 꺼져있다.

철수 배터리 다 됐나본데.  
유현 바뀌드릴게요.(핸드폰 건네준다)

### #4. 사무실

은숙 (통화중인) 별다른건 없었어요. ...네. 그럼 저희 먼저 퇴근 할게요.  
아 참, 수미씨 와있는데.

테이블에 앉아 조정 잡지를 뒤적이던 수미, 다가와 전화 받는다.

수미 고마워요 (통화하는) 나예요 선배. ....아니 뭐 별다른건 없구 선배  
출장 다녀온거 수고 했다고 그냥 맥주나 한잔 할러구 했지. ....네.  
(수화기 막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은숙 아뇨 그냥 끊으세요.  
수미 그래요 이따가 봐요.(전화 끊으면)  
해선 사장님 만나기로 하셨으면 이것좀 전해 주실래요. 오늘 온건데.  
수미 (서류 봉투 받아들며)그러세요.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은숙/해선 “그래요. 답에 봐요” “안녕히 가세요”각자 인사, 수미 나가면.

해선 수미씨도 이제 서른이 훨씬 넘었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거래. 관  
심있긴 한거예요 사장님도?  
은숙 표현 안해서 그렇지 사장님도 아마 좋아하긴 할거야.  
해선 느려터진 충청도 남자 뭐가 좋다구. 재미도 없고..  
은숙 해선씨가 몰라서 그렇지 남편감으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장님  
같은 사람이 딱이야. 글구 사장님은 잠시 청주에서 살았을 뿐이지  
그 쪽 사람은 아냐! (일어나며) 퇴근이나 하자.  
해선 근데 이대리님, 박주임님 목소리 어때요, 피곤해보진 않았어요?  
은숙 (어이없어) 뭐야, 싫다며~?  
해선 뭐 그냥... 그렇다구요.

### #5. 호프집 테라스 (밤)

철수, 맥주잔 앞에 놓고 노트북 커놓은채 조정자료 살펴보고 있다.  
자전거 벨소리에 고개 들면, 저만치서 자전거 타고 오는 수미.  
철수, 미소면 얼굴로 수미 보면,  
곧 테라스 아래 자전거 거치 시키고 바구니에서 서류봉투 꺼내드는 수미.

수미 (계단 올라오며) 뭘 그렇게 실실 웃어요. 모자란 사람 같애.  
철수 (화제 돌리며) 향수 안뿌리고 왔나봐.  
수미 예민도 하셔라. 용케 알아차리네. 정말 선배처럼 모과향 좋아하는  
사람 없을거야. (앉으며 테이블 벨 누르곤 서류 봉투 건네준다) 선배  
사무실에서 받아 온거야.  
철수 뭐지? (앞뒤 보며) 주소도 없네. (뜯어본다)  
수미 (다가온 직원에게 주문하는) 저도 오백 하나 주세요

내용물을 확인하곤 의아해 하는 철수.

수미 뭘테 표정이 그래요?

철수 ...한번 볼래? (건네준다)

살펴보는 수미. 메모 한줄과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한 개.

사진- 은행나무를 배경으로 대여섯명의 남녀 중학생들 포즈잡고 있다.

철수(16) 영화(16)/동환(16)/진성(16) 보인다. 메모를 읽어보는 수미.

수미 이제 당신에 대한 추억을 돌려드립니다...다? 단 한줄이네. 뭐야? 누가 선택 되게 좋아했나보다.

철수 (말도 안된다) 무슨....

수미 테이프는 되게 오래된거 같네. 설마 여기다 사랑고백 녹음할린 없을거 같구. 사진은 언제거야?

철수 중 3때.

수미 짐작 가는 사람 없어요?

철수 전혀.

수미 인기 많았나봐. 그런거 있잖아. 여학생들이 남학생 인기 순위 매기 구 그러는거. 그럴때 선배두 순위 안에 들곤 했던거 아냐?

철수 내가? (어이 없는 얼굴로 보면)

수미 왜? 선배 가만히 보면 매력있는 얼굴이야. 누군가 되게 좋아하는거 눈치 못챜거겠지. (시선 사진으로 돌리며) 선배! 그런 면에서 좀 무뎠네가 있잖아.(목소리 희미하게 떨린다)

철수 (담담한 어조로 술잔 바라보며) 눈치 채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난 좋아하는 감정에 있어서는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해. 괜히 어설픔 감정 내비쳤다가 상처 받느니!

수미 그럴까? 확실한거... 그런게 전부라고 믿는다면 세상 얼마나 쓸쓸해질까? (가볍게 한숨 쉬곤 사진 들여다 본다. 영화 가리키며) 애 아닐까? 바로 선배 뒤에 서있잖아.

철수 (들여다보곤) 갠 절대 아냐!

수미 ! (의아한)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철수 (쓸쓸한 미소) 그 앤 날 되게 싫어했어. 내가 어쩌다 스치는 것두 거부한 애야. 이름이 영화였거든.

수미 그게 어때서 (하다가) ! 아, 철수와 영화! (웃으며) 좀 우스웠겠네. 바둑이만 있으면 딱이겠다.

철수 첫출석 부를때 담임 선생님두 그런 말 했었지.

## #6. 몽타주 (1994년 청원)

(면소재지의 작은 중학교. 등교하는 교복 차림의 수많은 학생들.

자전거를 탄 교복 차림의 기석과 진성, 다른 사람들을 추월하며 달려가고,

역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해맑은 얼굴의 영화와 숙자도 보인다.

자전거를 달려오던 철수, 뭔가 강렬한 향기에 돌아보려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철수 옆을 스치는 영화.

철수, 자신도 모르게 멍하니 그런 영화를 바라본다.)

(교실- 철수를 돌아보곤 얼굴 빨개지며 고개 떨구는 영화.

학생들 두 사람 바라보며 웃고 있고. 미안한 얼굴로 고개 돌리는 철수)

## #7. 한적한 국도 (1994년 청원)

자전거를 탄 숙자/영화 천천히 달리고 있다.

숙자 하필이면 왜 이름이 철수래니?

영화 개 못봤던 얼굴인거 같은데.

숙자 알아봤는데, 이학년 말에 서울에서 전학 왔대. 아빠 일 때문에 잠시 내려온거라던데.

영화 (고개 끄덕이는)

숙자 (안스러운) 너 어떻게 할래. 개하구 일년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영화 (대답없이 한숨 쉬는)

숙자 근데...

영화 (보면)

숙자 은근히 멋있지 않니. 얼굴두 하얀데다 세련됐구.

영화 (한심한) 석광렬보다 더?

숙자 대답하려는데 갑자기 동환과 진성의 자전거,

빠른 속도로 달려와 그 기세에 넘어지는 두 사람.

킬킬대며 멀어져 가는 동환과 진성.

철수, 뒤에서 달려오다 그 광경 보았다. 잠시 망설이다 자전거 멈추는 철수.

숙자 재빨리 일어나 등에 땀 가방을 열고 카메라를 꺼내본다.

다행히 망가진텐 없는 듯.

숙자 (동환 향해) 야, 이 새끼들아! 가다가 확 논바닥에 처박혀 버려라!

철수 E (다가와) 팬찮아?

숙자, 돌아보곤 철수임을 알고 창피해 얼굴 빨개진다.

영화, 역시 철수 보곤 얼굴 굳는.

숙자 혹시 나 욕하는거 들었어?

철수 (자전거 일으켜 세워주며) 다치지 않았어?

숙자 (자전거 받아든다. 났나간 얼굴로) 어, 팬찮어. 어쩔 년 그렇게 매너도 좋니.

철수, 영희 자전거도 세워 주러는데 획 뿌리치며 자신이 일으켜 세운다.

숙자            아, 지지배야. 철수 무안하겠다.

영희, 자전거 끌고 저만치 가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시 철수 앞으로 되돌아 온다.

영희            (망설이다가 결심한듯)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철수            ! (보면)

영희            앞으로 일년동안 너! 절대루 나한테 말 붙이거나 아는척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철수            (병쩡 얼굴로 멍하니 보는데)

영희, 철수 시선 피하며 다시 자전거에 올라 달리기 시작한다.

숙자            지지배 승절두... 미안해서 어떡허 철수야.

철수            (담담히) 괜찮아.

숙자 미안한 얼굴로 철수 바라보곤 자전거에 올라타 영희를 뒤따라간다.

숙자            아. 같이 가자~

#### #8. 호프집(밤)

수미            재밌었겠네. (사진 들여다 보며) 근데 하필이면 왜 그렇게 싫어한 사람 바로 뒤에서 사진을 찍었을까...

철수            우연히 그렇게 된거겠지. 하여간 날 싫어한 정도가 아냐! 증오라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비슷한 감정이었을걸. 더구나 되게 내성적인 애였어.

수미            그런앨수록 자기 속마음과는 다르게 표현하는 수도 많다? (시선 피하며) 또 외향적인 사람 중에도 고백 못하는 사람도 있고... 선배 누구 사랑해 본적 없지?

철수            (없다)알면서 그러냐.

수미            하긴... 그랬겠지.... 그런데, 진짜 한번두 없었어?

철수            (쓸쓸히 웃으며) 있었던거 같기도 하구.

수미            언제?

철수            (담담히) 몰라 아주 오래전 일이라. 누굴 좋아했던 적은 있는거 같은데 기억이 없다.

수미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상처 받았었어?

철수            그런건 아니구, 뭐랄까... 그냥 스쳐지난 꿈이었던거 같기도 하구.

수미            재미 없다. 그 영희라는 애하고 뭐 또 에피소드 없었어?

철수            .....체육 시간이었을걸. (담담히)

#### #9. 운동장 (1994년 청원)

(체육복 차림으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 동환, 영희를 가리키며 다른 여학생에게 뭔가 귀엣말을 건넨다. 그 여학생은 다른 학생에게, 또 다른 학생에게..... 귀엣말을 전해들은 숙자, 애매한 얼굴로 영희 보는데.)

(각각 일대일로 남학생 여학생 짝마취 카세트에서 흘러 나오는 음악에 맞춰 포크댄스를 배우고 있는 운동장. 율동을 하면서도 시선은 한곳으로 모은채 웃고 있는 학생들. 보면- 얼굴이 빨개진채 철수와 손을 맞잡고 율동을 하고 있는 영희.

철수는 담담한 얼굴. 클로즈 업 하면 손대신 짧은 나뭇가지를 이어잡은 철수/영희)

#### #10. 거리(밤)

두 사람 걷고 있다. 자전거를 끌고 가는 수미 뭔가 생각에 잠겨있다.

수미            (혼자 중얼거리듯) ....힘들었겠다.

철수            (알아들지 못한 듯 걸음 멈추고) 누구?

수미            선배 짝사랑한 사람말야.

철수            (난 또 뭐라구) 누가 장난 한거겠지.

수미            선배 아주 무지하게 좋아하는 여자를 나 한명 알고 있다?

철수            누군데?

수미            있어. 누군지 밝힐순 없구.

철수            농담 하니?

대답없이 쓸쓸한 얼굴로 밤하늘 올려보는 수미.

#### #11. 아파트 복도(밤)

두 사람 걸어오는데 수미의 아파트 문이 열리며 영숙(56) 나온다.

수미            엄마!

영숙            핸드폰두 집에 놔두고 어딜 갔다오는거야.

수미            요 앞에, 선배하고 간단히 맥주 한잔 하느라고.

철수            안녕 하셨어요.

영숙            오랜만이네. 그런데 철수 학생도 장가 갈 때 된거 아닌가.

철수            네? 아...네...

수미            아우 증말, 학생은 무슨... 졸업한지 십년도 넘었는데.

영숙            사귀는 여잔 없어요?

철수 (당황해 수미 보며)  
수미 신경 끊어요 끊어. (엘리베이터 쪽으로 등 떠밀며) 빨리 가요 엄마.  
반찬 배달 다 끝났으면! 가려던 길이잖아.  
영숙 (뿌리치며) 봐 이것아. 나 너한테 할말이 있어서 온거야.

영숙, 다시 철수 보고 뭔가 말하려는데

수미 (문 열고 안으로 등 떠밀며) 그럼 들어가든가. 또 무슨 말 하려구.  
영숙 애가 왜 이래? (철수 보며) 그럼 답에 봐요.  
철수 아, 네. 그럼. (목례하는)  
수미 선배 우리 먼저 들어갈게. 잘 자요.

두 사람 들어가면.

철수, 쓸쓸하게 서있다가 수미집과 나란히 붙어있는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누른다.

## #12. 수미의 아파트 거실 (밤)

등 떠밀려 들어오다 뿌리치는 영숙.

수미 담부터 올텐 연락좀 하고 와요.  
영숙 시끄러 이것아. 엄마가 딸년 집에 오는데 무슨 연락이야.  
수미 딸년두 프라이버시라는게 있어.  
영숙 개 풀뜯어먹는 소리하고 있다. 그런데. (얼굴 환해지며) 철수 학생  
진짜 사귀는 사람은 없니.  
수미 왜, 나 엮으려구?  
영숙 너두 철수 학생 좋아하잖냐.  
수미 (사실이지만) 누가?  
영숙 이 년아, 귀신을 속여라. 너 그래서 일루 이사온거 아냐.  
수미 (사실이지만 자존심 상해서) 뻘겨든. 철수 선배 친오빠야 친오빠. 우  
리 안지 벌써 십년째라구 십년! 그리고 일루 이사 온건 회사가 가까  
워서 그런거지 무슨... 누가 누구 좋아해.

영숙, 맘에 안들게 노려 보다가 등짝 때리며.

영숙 에라이, 등신아!  
수미 아우, 아퍼 엄마.  
영숙 (핸드백 챙기며) 하여간 똥구. 니 앨범에서 사진 하나 빼간다.  
수미 사진은 왜?  
영숙 왜긴 왜야, 시장에 내놓려고 그러지.

수미 아우 엄마~

수미, 엄마 가방 뺏으려고 하면 다시 손 번쩍 드는 영숙

영숙 너 또 한번 맞아볼래?  
수미 (물러나며) 하여간 나 선 안봐! 맘대루 해.  
영숙 (현관에서 신발 신으며) 거기 다용도실 재활용 쓰레기나 좀 갖다버  
려 이것아. 우유팩 안행귀놔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 간다.

영숙 나가면. 수미 짜증스런 얼굴로 소파에 몸을 던진다.

그러다 그 시선으로 보이는 텔레비전 다이위에 조그만 사진 액자.

수미 일어나 다가가서 액자를 들어본다.

대학 산행 가서 찍은 사진인 듯 여러명의 산악부 학생들 가운데 철수 뒤에서 환하  
게 웃고 있는 수미.

## #13. 철수집 거실(밤)

종이박스를 들고와 거실에 내려놓는 철수, 박스위의 만지를 대충 털어내고 뚜껑을  
열어본다. 초중고 졸업 앨범. 호출기. 워크맨과 오래된 일기장들.

중학교 졸업 앨범을 꺼내 펼쳐보는 철수. 어느 페이지- 짧은 머리의 철수 사진.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영희, 숙자 동환, 진성의 옛된 얼굴도 보인다.

미소 짓는 철수. 천천히 추억에 잠기는.

## #14. 학교 전경 (1994년 청원)

수업시간인 듯 조용하다. 그 위로-

철수 E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확자지결 아이들의 웃음 소리

## #15. 교실 (1994년 청원)

칠판, “나의 희망” 써있다. 교탁앞에 서있는 철수.

아이들 웃으며 “와! 공부 엄청나게 해야겠다” “돈 많이 벌겠다”등등 야유

그 소란 속에서도 별 관심 없는 듯 말없이 창밖만 보고 있는 영희.

철수 (조용히 미소 짓곤) 의사가 되두 별로 돈은 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나무 의사가 될겁니다.

아이들, 그런것두 있나? 표정으로 보는데.

영희, 창밖에서 시선 거두고 철수 본다.

철수 나무두 살아있는 생명이거든요. 우리에게 그들을 주고 꽃을 보여주고 가구를 제공 해주고 너무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이 병들어 아플때 고쳐줄수 있는 나무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숙자 (오! 감탄하는)

영희 (보일 듯 말 듯 미소 넓게 떠오르고)

담임 (나서며) 철수 말대로 나무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 큰 도움을 주고 있어. 그런 나무가 병들었을때 고쳐주는 의사가 되겠다니 너무 기특하구나. 여러분 박수!

아이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오버랩,  
화면- 영희, 고개 숙인채 교탁앞에 서있다.

영희 (고개 숙인채) 전 정말 아직까지 뭐가 되겠다 그런거...한번두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그래두 있을거 아니냐?”“뭐 저런애가 다 있다?”소란스런 가운데.

동환 그럼 철수랑 결혼이나 히!

아이들 정신없이 웃으면 얼굴 빨개진채 어쩔줄 몰라 하는 영희.  
동환을 노려보는 철수.

#### #16. 학교 복도 (1994년 청원)

동환, 진성과 웃으며 걸어가고 있는데 뒤따라 달려가는 철수.  
철수, 그대로 주먹을 날려 동환의 뒤통수를 때린다.  
동환, 갑작스런 철수의 주먹을 맞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싸우기 시작한다.  
영희/숙자, 교실에서 나오다 싸우는 모습 보고 깜짝 놀라는.  
영희는 어쩔줄을 몰라 하고, 숙자는 재빨리 교실로 다시 들어간다.  
아이들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동환과 싸우고 있는 철수.  
숙자, 카메라를 들고 나와 싸우는 두 사람을 사진 찍기 시작한다.  
옆치락뒤치락 하다 끝내 동환을 때려 눕히고 일어서는 철수. 역시 교복 단추 몇 개 뜯겨져 나간채다. 코피와 땀으로 얼룩진 동환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철수.  
그런 철수를 났나간 얼굴로 지켜보던 숙자 다시 사진 한방 찰카하는데.

학.주 E 니들 뭐하는거야?

아이들 돌아보면 학생주임 서있다.

학.주 이 자식들이 학년 초부터 싸움질이나 하구! 둘 다 학생과로 따라와!

학생주임을 따라가는 철수와 동환.  
철수, 걸어가다 복도에 서있는 영희와 시선 부딪친다.  
놀란 얼굴로 철수를 보는 영희.

#### #17. 학생과 (1994년 청원)

동환/철수 두 팔을 든채 무릎 꿇고 앉아있다.  
학생주임, 그들을 등지고 책상앞에 앉아 뭔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슬며시 손을 내리는 동환. 철수를 본다. 여전히 손을 들고 있는 철수.  
동환, 무릎으로 철수의 무릎을 건드리며 자신처럼 팔을 내리라고 입모양.  
철수, 잠시 망설이다 슬며시 팔을 내린다.  
동환 웃으면, 핏 웃는 철수.

#### #18. 분식집 (1994년 청원)

철수와 동환/진성. 떡볶이 먹고 있다.

동환 (멍든 눈두덩이 쓰다듬으며) 새끼, 주먹 진짜 세네.  
진성 너 서울 학교에서 짱먹었냐?  
철수 짱은 무슨... 니들 또 한번 경고 하는데 영희 다시는 놀리지 마라?  
동환 알았어 새끼야.  
진성 근데 너 혹시, 영희 개 좋아 하는거 아니냐? 이쁘잖어.

철수 아주 잠시지만 당황한다.  
하지만 곧 담담한 얼굴로 떡볶이 포크로 찍어 진성의 입에 물려주며

철수 말두 안되는 애기 하지말구 떡볶이나 먹어 입마.  
동환 개가 이쁘긴 머 이쁘나 새끼. 여잔 강리나 정도는 되야지.  
진성 아 증말. 나이두 어린게 섹시한거 진짜 좋아허네. 야마. 여자는 모름지기 청순가련, 다슬이 심은하여 심은하.

호출기 신호음. 철수. 번호 확인하려는데 재빨리 호출기를 집어드는 동환.

동환 뭐야, 모토로라네. 아 짜증나. (철수, 호출기 채간다) 나두 울엄마한테 모토로라 사달라구 했는데 (주머니에서 호출기 꺼내며) 골드스타가 뭐냐. 쪽팔리게.

철수, 호출기 살펴본다. 번호 보고 의아한.

#### #19. 공중전화 박스 (1994년 청원)

철수, 호출기 음성 확인한다. 노래 선물이다. 의아한 얼굴로 노래 확인하는 철수.  
(김광진 노래의 마법의 성.) 노래 시작되며-

#### #20. 연제리 모과나무 길 (1994년 청원)

철수, 여전히 의아한 얼굴이지만 서서히 평안한 얼굴로 자전거를 타고 모과나무 길을 달리고 있다.  
그 위로 19#의 노래 “마법의 성” 이어진다.

#### #21. 거실(밤)

미소 지며 호출기와 앨범을 박스에 집어넣는 철수.  
이번엔 워크맨을 꺼내 카세트 테이프를 집어넣고 플레이 스위치를 눌러본다. 작동이 되지 않자 열어보면 건전지가 없다.

#### #22. 디자인실

의류 디자인실이다.  
직원들, 각자 일을 하면서도 수미의 통화에 귀 기울이고 있다.

수미 (통화중인) 글썸 엄마 난 선 안본다니까. ....칼택이구 뭐구 그렇게 좋은 조건이면 엄마가 가던지! ....아우 증말! 죄송 하지만 끊으께요. 지금 바쁘거든. (끊으면)

선배1 선 보라는거야? 좋은 조건이면 가지. 수미씨 그렇게 뻔뻔 입장 아니잖아? 마흔 금방 된다.

수미 선배까지 왜 그러세요? 같은 싱글이면서 (손부채질 하면)

후배1 어머 시월인데 선배 아직두 더우세요? 에어컨 틀으까?

수미 내가 못살아. 지연씨까지 왜 그래 증말? (일어서 밖으로 나간다)

선배2 이수미씨 사귀는 사람 있는거 아냐? 그 이따금 전화 오는 대학 선배라는 사람말야.

후배1 지난번 회사 앞 식당서 같이 점심 먹는거 봤는데 인상 좋던데...

실장 자 일이나 합시다. 어서 빨리 내년 봄상품 준비 해야지.

#### #23. 옥상

수미 (통화중인) 그래 증말 미치겠어. 회사 사람들까지 왜 이러냐 선배.

#### #24. 사무실

철수 (통화중인 철수. 씩씩히 웃으며) 칼택 나왔으면 머린 좋겠네. 그래, 이 기회에 선포하라! ....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해선 (어이 없는) 헐~ 대박!

은숙 전화 끊었어요? 수미씨.

철수 화났나 본데.

해선 사장님, 증말 잔인 하시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다른 사람하구 선을 보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태연히 할 수 있어요?

철수 또 오버한다. 전혀 그런 사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단순한 선후배,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선 사장님 감정은 그럴지 몰라도 수미씨 감정은 그게 아닐걸요.

철수 그런 추측 같은거 나 믿지 않는거 알지? 그나저나 이거 어떻게 풀어주지?

해선 으이구. 병주고 약줄려구요?

유현 (끼어들며) 해선씨는 절대 선같은거 보면 안됩니다?

해선 왜요?

유현 내가 있잖아요.

해선 (뽀로통해) 됐거든요.

은숙 일어나죠. 점심시간 다 됐네.

#### #25. 옥상

손에 권 핸드폰 바라보며 쓴웃음 짓는 수미.

#### #26. 회사 앞

철수/은숙 걸음 옮기는데,

해선 (방향 보곤) 뭐예요 사장님. 또 곱창전골이에요? (맘에 안드는)

철수 어때서?

해선 김치 전골, 두부 전골, 어떻게 맨날 전골이에요?

유현 그럼 내가 오늘 파스타 쓸게. 가자. 깔보나라 잘하는집 아는데.

은숙 그래 그럼. 해선썬 박주임이랑 거기루 가라.

철수/은숙 다시 걸음 옮긴다.

해선 (두 사람 뒷모습 보다가) 좋아요 박주임님. 우린 파스타 먹으러 가요. 대신!

유현 그래그래 대신.

해선 오해는 하지 말아요. 내가 박주임님 좋아서 따라가는걸루!

유현 암 암. 당연하지. 가자.



## #27. 전골집.

테이블 곱창전골 끓으면. 은숙, 국자로 철수의 앞접시에 국물 떠주며.

은숙            지난번 수미씨 유럽 출장 갔을 때 그때 사장님, 다른때하고는 좀 달라 보였어요. 생기가 없었다고 해야 하나...

철수            그렇게 보였어?

은숙            저뿐만 아니라 박주임이나 해선씨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을걸요.

철수            (농담조로) 일들은 안하고 오너 기분만 파악했나봐. 먹자. (수저 들며) 수미가 친구 같아서 그럴거야. 편하잖아. 십년넘게 거의 일주일 에 두세번씩 왔었는데. 수미도 나하고 비슷한 감정일걸.

은숙            저두 벌써 사장님하고 헛수로 팔년째 일하고 있어요. 같은 여자로서 느끼는 건데 수미씨 감정은 편한거 그 이상일걸요?

철수            (보다가 헛 웃는)

은숙            수미씨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면 사장님 아무렇지도 않을거 같아요? 편한것도 사랑이예요. (식사 시작한다)

철수            ! (보는)

## #28. 복한산 일각

두 사람, 바위에 앉아 건너편 인수봉 암벽 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

철수            어때 기분 좀 풀렸지?

수미            (건성으로) 한결 낯네.

철수            어떡하면 니 기분 풀어줄까 많이 생각하구 여기 데려온거야 너. 이렇게 후배 챙겨주는 선배 나밖에 없을거다?

수미            (서글픈) 선배.... 선배 좋은 말이지. 대학 시절 생각나네.

철수            ....

수미            그때 선배, 나한테 쫓아와서 동아리 가입하라구 그랬잖아.

## #29. 캠퍼스 (2000년 서울)

테이블을 펼쳐놓고 곳곳에서 각자 자신의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는 풍경 보인다. 텐트, 침낭 배낭등 자일과 등산고리등이 펼쳐져 있는 산악 동아리.

철수(24), 회원들과 함께 신입생들에게 동아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다 문득 어디선가 풍겨오는 향기에 고개를 드는 철수.

자전거를 탄 옛된 얼굴의 수미(20) 천천히 앞을 지나고 있다.

철수, 그런 수미를 바라보는데, 한눈에 반한 느낌이라기 보다는 뭔가 생각하는 것 같은 표정이다.

철수 앞을 스쳐가는 자전거. 철수 자신도 모르게 자전거를 따라 달려간다.

철수            저기요!

수미, 소리 들곤 자전거 멈추고 돌아본다.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철수를 발견하는 수미. 누구를 부른건가 돌아 보다가 아무도 없자 자기를 부른거냐고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면. 고개 끄덕이며 다가오는 철수.

철수            신입생이죠?

수미            네.

철수            무슨 과예요?

수미            의상 디자인과요.

철수            산악 동아리 가입 안할래요?

수미            산악 동아리요?

철수 고개 끄덕이면. 수미 고개 들어 저만치 철수 뒤쪽에 펼쳐져있는 산악 동아리 홍보대를 본다. 잠시 바라보다가.

수미            왜 내가 산악 동아리에 가입해야 돼요?

철수            모과가 생각 나서요.

수미            ?

철수            모과향이 은은해서요.

수미            !

철수, 시선 피하며 자전거를 바라본다. 그런 철수가 의아한 수미.

## #30. 동아리 방 (2000년. 서울)

산악부 동아리 방.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며 웃고 있는 철수.

저 아래,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는 수미 보인다.

철수 동아리 방을 나간다.

## #31. 캠퍼스 학생회관 앞 (2000년 서울)

수미, 자전거에 올라탄채 철수 기다리고 있다.

웃으며 건물에서 나오는 철수.

수미             뭐야 선배. 또 실실이야?

철수             그냥... 너한테선 기분 좋은 향이 나서.

수미             모과향? (땀 웃으며) 어후 참. 저 짐착. (내려와 철수에게 자전거 건네며) 선배가 나 좀 뒤에 태워줘. 학생식당 갈려면 언덕이잖아.



철수            그냥 끌고 가자. 나 뒤에 누구 태워본적 없어.  
수미            진짜? 한번도?  
철수            (웃는데)  
수미            그럼 이 기회에 한번 해봐. 드디어 처음으로 여자를 태울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줄게.  
철수            (웃으며) 가자. 자전거 내가 끌고 갈게.  
수미            (밟지않게 보며) 증말 재미없다.

### #32. 북한산 일각

저만치 인수봉 보인다.

수미            모과향이 나서 산악 동아리에 가입해야 한다구? 그뎨 나 선배 좀 이상한 사람이라구 생각 했었어. 왜 그랬어?  
철수            (웃으며) 왜 그랬을까...  
수미            좀 속 시원하게 말좀 해봐라. 모과에 대한 추억이라도 있어?  
철수            글썄...  
수미            참, 속을 알수가 없어 선배.

수미 씩씩한 미소 지으며 건너편 인수봉 암벽 타는 사람들 본다.

수미            저기 오르는거 참 좋아했지? 위에 뭐가 있어?  
철수            아무것도. 그냥 바람만 있어. 타구 싶니?  
수미            (고개 저으며) 알잖아. 우리 대학 산악부에서 유일하게 저기 오르지 못한 사람이 나라는거.  
철수            나두 사고난 후론 올라간적 없었는데. 내가 도와줄테니까 언제 한번 같이 시도 해볼래?  
수미            (고개 젖곤) 언젠가 한번 올라가긴 해볼거지만 선배 도움 안받구 올라볼거야.  
철수            왜?  
수미            선배한테 익숙한 길이잖아. 난 요즘 들어 익숙한것들이 조금씩 짜증나더라 (일어난다) 내려가자.  
철수            벌써?  
수미            저 아래 손두부집 있잖아. 거기 막걸리 생각나네.  
철수            대낮부터?

### #33. 손두부집 앞.

수미, 들어가려다 한 남자와 나란히 안에서 나오는 등산복 차림의 디자인실 실장과 마주친다.

수미            어? 실장님.  
실장            (당황하며) 이수미씨!

실장, 당황한 빛으로 동행인 남자를 보면 남자 말없이 먼저 걸음 옮긴다.  
수미, 의아한 얼굴로 멀어지는 남자를 본다.

실장            (평정 되찾고) 수미씨도 등산 왔나봐.  
수미            아, 네.  
실장            서울 참 춥다. 이렇게도 만나네.  
수미            그러게요.  
실장            그럼 마시다 가. 우린 벌써 끝났거든.  
수미            네. 가세요.

실장, 철수에게 가볍게 눈인사하곤 남자가 사라진 쪽으로 걸음 옮긴다.

철수            누구.  
수미            우리 디자인실 실장님. 남편이랑 등산 왔나봐. 보기 좋다.  
철수            들어가자.

### #34. 손두부집

막걸리 벌컥벌컥 들이키는 수미.

철수            요즘 너 예민해 보이는데... 가을 타니?  
수미            그런 말이 어딴냐? 가을은 남자가 타는거지. 여자는 봄 타는거구.  
철수            (보다가) 아냐 요즘 보면 너 무슨 일 있어. 너답지가 않아.  
수미            나? (핏 웃으며) 씹씩한거? 나두 여자야 선배! 선배는 내가 여자로 안보여?  
철수            짜식!  
수미            그 말두 거슬리네.  
철수            시비 걸려구 걱정 하는거 같다 임마!  
수미            (화제 돌린다) 태입은 들어봤어?  
철수            아직. 그 사진 찍을때 상황은 생각이 났어.

### #35. 운동장. (1994년 청원)

은행나무가 서있는 운동장.

철수, 동환/진성을 비롯 네다섯명의 학생들 철봉대에서 놀고 있다.

약간 떨어진 곳- 은행나무 아래에서 나무 기둥에 뭔가를 쓰고 있는 영희 보인다.

동환 강호동, 아들 있대구? 땡치지마 새까.  
진성 진짜라니께. “오늘은 좋은날” 거기 나오는 포동이, 개라구 그러더  
라. 강호동 씨름 판두구 없어졌을 때 개 낳았댄다 임마.  
동환 아, 새끼 말끝마다 땡. 야 철수야.

그때까지 영화 지켜보고 있던 철수, 정신이 들은 듯 동환 본다.

동환 너두 포동이가 강호동 아들이라구 생각하냐?  
철수 소나기에 나오는 애?  
진성 그래. 생긴것두 똑같잖어.  
철수 아닐걸. 나이가 안맞잖아. 강호동이 몇 살인데.  
동환 거봐 새까.

카메라를 들고 철수네로 다가가는 숙자.

숙자 야 다 모여, 사진 찍어줄게.  
아이들 (시큰둥)  
숙자 안찍을꺼?  
동환 뽀아 주지두 않는 사진 뭐하러 찍냐?  
진성 맞아. 지 구도 연습 할러구.  
숙자 이번엔 이 누나가 진짜 빼서 줄테니까 빨리 모이거나 허!  
동환 진짜지?

아이들 하나둘씩 모여들면

숙자 (둘러보다가) 어! 저기 영화 있네. 절루 가! 은행나무 노랗게 잘  
나올꺼.

영화, 다가오는 아이들을 발견한다. 철수와 시선 마주치는 영화.  
뭔가 숨기려는 듯 한손으로 다른 손 감싼채 피하려 하면.

숙자 너 어디 가. 같이 찍지.

뒤따라가 영화를 끌고 오는 숙자. 영화, 어쩔수 없는 듯 일행 속으로 들어간다.  
살면서 아이들을 헤치고 들어가 철수 뒤에 서서 자세를 잡는 영화.

숙자 좋아, 찍는다. 하나둘셋!

사진 찍은 아이들, 흩어지려는데,

숙자 어, 영화 너 웬 피야?  
동환 그러게. 뭐에 베인거 같은데.

아이들 돌아보면 무언가에 베였는지 제법 손바닥에서 흘러 나오는 피.  
걱정스런 눈빛의 철수와 문득 마주치는 영화의 시선.  
영화, 차갑게 시선 돌리며 갑자기 교실 쪽으로 달려간다.

### #36. 손두부집

이미 여러개 비워진 막걸리병.

수미 뭐에 베였는지는 모르구?  
철수 어. (술 마신다)  
수미 (보다가) 그 애였을거야. 사진 보낸 사람.  
철수 아니라니까. 무슨 증거루.  
수미 직감이라는거!  
철수 윈 참! 지난주에 은숙씨두 그런말 하더니.  
수미 은숙씨두 영화라는 애라구 그래?  
철수 아니. 니가 날 좋아하구 있댄다. 여자의 직감으로 안대. 우습지 않  
니? 내가 무더서 모르는거란다.  
수미 (서글픈, 쓴웃음) 무던건 사실이지 뭐.... 지난번, 내가 선배를 무지하  
게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 알고 있다고 그래잖아.  
철수 (보면)  
수미 (술 한모금 들이키곤 탁자에 시선 둔채) 내가 아주 잘 아는 애야.  
대학 다닐때부터 선배 되게 좋아했다. 늘 선배 근처에서만 맴돌았  
어. 항상 선배 보며 웃고 있었고,.... 또 늘 선배뒤에 서있었고.... 선  
배 실족해서 사고 났단말 들었을땐 잃었어.... 놀라 다릴 후들거리  
다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쓰러졌었어....  
철수 (뜻밖인 듯 보다가 핏 웃는) 그런 여자가 어땠었나 나한테?  
수미 있었어. 늘 선배뒤에 있어서 몰랐을거야.  
철수 (못믿겠다)왜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대?  
수미 용기가 없어서래. 개는 항상 밝고 씩씩한 아인테 선배 앞에서는 용  
기가 안난대.  
철수 지금은 뭐하니 그 여자? 되게 궁금하다. 아직두 나한테 미련 있는지  
그건! ...모르겠다. 그 여자두 이젠 지쳐갈걸? (술잔 든다) 오늘  
나 이상하게 술 잘 받네. 한잔 따라주라.

### #37. 달리는 택시 안 (밤)

뒷자리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

수미 (피곤한 듯) 선배 어깨좀 빌려주라. 눈좀 붙이게. 오랜만에 산에 오  
르데다 술기운 도니까 피곤하네.  
철수 (어깨 받혀준다)  
수미 (머리 기댄채 눈을 감는다. 잠시후) 나! 선볼까?  
철수 (아주 순간적이지만 눈빛 흔들린다 그러나) 마음대루.  
수미 (여전히 눈감은채) 나 선보면 선배 어떻게 알아?  
철수 (짐짓 밝게) 글썄.... 시원섭섭 하겠지.  
수미 (감겨진 눈가가 가볍게 흔들린다) 그래. 그렇겠지.

철수, 눈감은 수미 보다가 창밖으로 시선 옮긴다.  
쓸쓸한 표정으로 어두운 밤거리를 내다보는 철수. 그 위로.

은숙 E 수미씨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면 사장님 아무렇지도 않을거 같아요?  
편한것도 사랑이에요.

철수, 눈감고 있는 수미의 얼굴 바라보다 마침내 결심한 듯

철수 수미야.  
수미 (눈감은채) 어.  
철수 커피 한잔 타줄래. 너희 집에서?  
수미 (무심히) 그래.  
철수 (망설이다) 할 얘기가 있어.  
수미 (눈뜨고 철수 본다) 지금 얘기해.  
철수 (시선 피하며) 이따가, 집에 가서 말할게.  
수미 (뒤편 표정으로 보는)

### #38. 아파트 광장 (밤)

두 사람 걸어오는데. 어딘지 비장한 철수의 얼굴을 보며 궁금해 하는 수미.  
저만치 동건물에서 빈 우유팩등 재활용품이 들어있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던  
영숙 두 사람 발견하고.

영숙 이제 오는거야?  
수미 엄마! (다가간다)  
철수 (실망한. 그러나 곧 표정 감추며 미소) 오셨어요?

영숙 어 그래요. (냄새 맡곤 얼굴 찡그리며) 냄새~ 너 막걸리 마셨니?  
수미 산밑에서. 어쩔 일이에요.  
영숙 망할 것. 니가 계속 시간 없다고 하길래 내 직접 왔다. 이것야. 이거  
나 갖다버리구 와.

수미 얼떨결에 재활용 봉투 받아들면.

철수 그럼 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수미에게 눈인사 하고 들어가려는데)  
영숙 같이 올라가요 철수 학생. 먼저 올라가서 마저 청소하던거 해야돼.  
넌 그거 버리고 올라와라.  
수미 엄마~  
영숙 그 쓰레기 니꺼잖아. 당연히 니가 버려야지. 우린 올라가요.

철수 팔 잡아끄는 영숙. 수미 어이 없다.

### #39. 아파트 현관 엘리베이터 앞(밤)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다. 영숙, 철수 잠시 보다가

영숙 철수 학생 나 부탁할게 있는데, 좀 도와줄수 있어요?  
철수 네? 아, 네. 말씀 하십시오.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도와드  
려야죠.  
영숙 우리 수미하고 안지도 벌써 십년 넘었잖아.  
철수 네.  
영숙 난 철수 학생이 우리 수미랑 좀 가까웠으면 하고 내심 기대 했었거  
든. 둘 다 인제 나이두 있고 하니까.  
철수 !

엘리베이터 열린다.

### #40. 엘리베이터 안(밤)

영숙 내가 며칠전 수미한테 넌지시 물었봤었어. 철수 학생 어떠냐구.  
철수 (기대하는)  
영숙 근데... 그냥 친오빠 같다네.  
철수 (실망하는)  
영숙 뭐 어떡하겠어. 지 맘이 그렇다는데. 그래서 말인데....

### #41. 철수집 현관 (밤)

현관 안으로 들어서던 철수, 문득 생각하는.

영숙 E 지난번부터 선 보라고 하는데 도대체 통 말을 들어먹어야지. 철수 학생 친오빠처럼 생각하는거 같은데 얘기좀 해줘. 내 말은 안들어도 철수학생 말은 들을지 모르잖아.

철수 쓴웃음 짓는.

#### #42. 수미집 거실(밤)

영숙, 고무장갑 끼고 싱크대 청소하고 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 들리며 수미 들어와 다가온다.

수미 철수 선배한테 무슨 이상한 말 한거 아냐?  
영숙 (돌아보며) 무슨 소리야 애가?  
수미 (영숙 얼굴 살피며) 쓸데없는 말 한거 아니지?  
영숙 장가 안가느냐고 물어봤다! 그런 말도 못 물어보냐?  
수미 ! 뭐래?  
영숙 전혀 생각 없낸다! 맘에 드는 여자 아직도 못찾았대!  
수미 (실망하는)  
영숙 개 눈만 너무 높은거 아니냐.  
수미 (신경질적으로) 높을만 하니까 높겠지.  
영숙 아니 왜 신경질이야 신경질이지?  
수미 (방으로 들어가며) 나 옷갈아 입고 나올게.  
영숙 별볼 다봐. 진짜 지 오빠루 착각하는거 아냐?

(INSERT 아침의 아파트 전경)

#### #43. 아파트 주차장

철수, 주차해둔 자동차 문을 열려는데 수미 다가온다.

수미 선배!

철수, 차에 타려다 수미 본다. 잠깐이지만 쓸쓸한 얼굴.  
그러나 곧 표정 감추며 짐짓 밝게.

철수 야, 너 어머니 되게 걱정 하시더라. 선 안볼거야?  
수미 (황당한 얼굴로 보는데)  
철수 나두 너 걱정돼 그래 임마.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수미 (말 끊으며) 됐거든요. 선배 걱정이나 하세요. 별꼴이야.

수미, 화난 얼굴로 곁에 있는 자신의 자동차에 올라탄다.

철수 (약간은 민망한) 아니 야, 수미야. 난 너 걱정되서...

수미 그대로 자동차 출발한다.

철수, 민망한 얼굴 서서히 쓸쓸한 얼굴로 변하는.

#### #44. 디자인실

미팅중인 직원들. 수미 역시.

실장 그래요, 그럼 여러분의 결론대로 내년봄 제품은 여성다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전문직 직종들의 특징을 최대한 살린 그런 방향으로 시도 해 봅시다. 아마 다른 해보다도 힘들거 각오해야 될거예요. 서로 상충되는 전혀 반대방향의 성격을 조합해야 되는 거니까. 내일부터 최대한으로 머리 짜내시라는 의미로 오늘은 모든거 다 잊고 최대한으로 즐겨 보도록 합시다! 이따 회식 한사람도 빠지지 말고 참가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는 직원들.

선배1 또 내일부터 머리 빠지게 생겼네.  
수미 맨날 외롭다구 하더니 잘 됐잖아요 선배. 일에만 전념해서 외로운거 다 날려 버려요.  
선배1 지난번 자기끼 두개나 히트 했다고 여유 잡는거야?  
수미 여유는 무슨. 선배한테 얘기 하는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나 요즘 무척 쓸쓸하니까.  
지연 그럼 그 칼텍 전 봐봐요.  
수미 그렇지 않아도 널 만나기루 했어.  
지연 대박~

놀라는 직원들. 애써 시선들 무시하곤 자리로 돌아가는 수미.

#### #45. 달리는 차 안.

철수 뭔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다.  
운전하던 유현, 신호등에 걸려 자동차 멈춘다.  
문득 고개 돌리다 운동회가 열리고 있는 도로옆 초등학교 운동장을 본다.

유현            가을은 가을인가 보네요. 운동회 열리는거 보니까.  
철수            (생각에 골똥한)  
유현            (그런 철수 보고는) 뭐 생각하세요 사장님.  
철수            어? 어... (생각에서 깨어나) 뭐라구 그랬어?  
유현            (초등학교 눈짓하며) 운동회 하고 있다구요.

철수, 고개 돌려 학교 운동장을 본다.  
무심히 바라보곤 고개 돌리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다시 운동장 바라본다.

#### #46. 운동장 (1994년 청원)

중학교 체육대회 풍경. 매스게임, 응원전, 달리기등 여러 가지 풍경 보여주는 가운데 아이들과 함께 출발선상에 서있는 영화.  
100미터 트랙 중간쯤에는 같이 갈 일행을 적어놓은 종이가 놓여있다.  
신호와 함께 출발하는 학생들. 뛰어가 종이를 집는 학생들, 지시한대로 교장에게로, 학부모에게로 각자 뛰어간다.  
종이 살펴본 영화 잠시 머뭇거리다 응원석 둘러보며 누군가를 찾는다.  
곧 철수를 발견하고 달려가는 영화. 응원석을 헤치고 철수에게로 달려와 빨개진 얼굴로 철수의 손을 잡는다.  
잠시 얼떨떨해하다 손을 잡고 같이 달려가는 철수.

동환            뭐여, 철수와 영화야?  
영화            (안타까워) 어머 어머. 영화 재 어떡해. 하필이면 왜 철수야?

중간쯤 종이 놓여졌던 자리로 달려가 끈으로 철수와 자신의 발목을 묶는 영화.  
2인3각으로 결승선을 향해 달려간다. 어른들과 같이 뛰어가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 아무래도 앞서는 두사람.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한다.  
강충강충 뛰며 기뻐하던 두 사람. 그러다 문득 시선 마주치면 섧해지는데 영화.  
철수는 어안이 병병한 얼굴로 그런 영화 보고.  
결승선에서 종이 확인하는 사람쯤계 생긴 여자 선생님, 영화의 손에서 종이 받아들이고 확인한다. 순간적이지만 당황한 표정, 그러나 곧 웃으며 영화와 철수의 손을 들어주는 여선생.

#### #47. 술집(밤)

노래방 기계가 있는 룸 정도.  
수미 노래 부르고 있다. 신나는 뽕짝 정도,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애절한 몸짓.

선배1           수미씨 오늘 왜 저러냐? 노래는 신나는데 표정은 애절해 보이네.  
지연            그러게 말예요. 실연 당한 사람 같기도 하구.

실장            (유심히 본다.)

#### #48. 술집 앞 (밤)

일행들 서로 인사하며 헤어지는데 수미에게 다가오는 실장.

실장            수미씨, 술 더 할 수 있어?  
수미            악을 쓰며 마셨더니 술 다 됐네요.  
실장            그럼 어디 가서 나하구 한 잔 더 하자.

#### #49. 와인 바 (밤)

두 사람 와인잔 앞에 놓고 앉아있다..

실장            수미씨 좋아하는 사람 있지?  
수미            (սսսս한 웃음)  
실장            이따금씩 전화오는 그 대학선배라는 사람?  
수미            (고개 끄덕이며) 근데 그 선배는 못알아 주네요. 아니다. 안알아 주는건가...  
실장            고백 해봤어?  
수미            (웃으며) 아주 오래전에... 오래전에 한번 해봤던거 같아요...

#### #50. 설악산 울산바위 (2000년)

산악 동아리 회원들, 암벽등반중이다.  
저 위쪽, 까마득하게 코스를 타고 있는 철수(24) 보인다.  
걱정스런 얼굴로 철수를 올려다 보고 있는 수미(20).  
회원1, 그런 수미를 보고 웃으며.

회원1           야, 이수미! 너 안탈거야 임마?  
수미            (웃으며) 난 등산하러 동아리 가입했지 암벽타는거면 애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선배.  
회원1           어우, 저거 하여간.  
회원2           관뉘라 관뉘. 너 이수미 갈구지마 짜샤. 그러다 동아리 나가면 어떡할려구 그러냐. 가뜰이나 산악회 3D라구 안들어 올려구 하는데... 내년 신입회원 남자놈들 모집할려면 이수미 꼭 있어야 된다고!  
회원1           그러네 그건.  
회원2           좀 생각하며 살아라 생각을.

수미 웃는다. 다시 걱정스런 얼굴로 암벽을 타는 철수를 보는.

#### #51. 민박집 마루 / 밤 (2000년)

회원들, 마루에 둘러 앉아있다. 제법 많은양의 빈 막걸리병 흩어져 있다.  
진실게임 중인듯 촛불, 철수 앞으로 옮겨진다.

회원2            철수한테 뭐 진실 물어볼거 있나. 삶 자체가 진실인데.  
회원1            그러게. 야, 담 사람한테 넘기자. 재 재미없어.

수미, 막걸리잔 비우곤 손을 번쩍 든다. 좀 취한 상태다.

회원2            뭐야, 이수미 너 뭐 궁금한거 있어?  
수미            네. 철수 선배....  
철수            (보면)  
수미            철수 선배도 첫사랑 같은게 있었어요?  
철수            (그냥 웃는데)  
수미            있었어요?  
철수            모르겠어.  
수미            뭐 말이에요?  
철수            (웃으며) 정말 모르겠어. 있었는지 없었는지.  
회원3            야 그건 아니다. 하다못해 초등학교때 선생님이라두 있었을거 아냐.  
회원1            그래 그렇지. 난 중학교때 친구 누나가 내 첫사랑이었다. 시집 갔는데 지금도 가끔씩 보면 가슴 설레더라.  
회원2            원래 여자보다 남자가 첫사랑 평생 잊지 못하는 법이야. 왜 그런지 아냐? 가장 순수할때거든. 조건이나 환경 아무것도 따지지 않구,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환상이 왕성할 때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잊겠냐.  
수미            난, 내가 좋아하는 남자, 결혼해서두 맘속에 첫사랑 여전히 간직하고 있으면 용서 못할거 같애.

홀췌 잔 비우는 수미. 철수를 본다.  
철수, 뭔가 생각하는 얼굴이다.

#### #52. 민박집 마루. 새벽 (2000년)

다들 술취해 잠들어 있는 회원들. 방에서 나오는 수미.  
머리가 아픈듯 손으로 관자놀이를 잡고 조용히 그들 사이를 뚫고 마당으로 나간다.

#### #53. 민박집 마당. 새벽 ( 2000년)

수미, 마당 한구석 수돗가에서 바가지로 물을 받아 마신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려다 뭔가를 보았는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 마당밖 저만

치 한적한 시골길을 본다.

해맑은 얼굴로“마법의 성” 노래 부르며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오는 철수.  
오다가 길 가 어느 모과나무 앞에서 자전거를 멈춘다.  
그리곤 쓸쓸한 얼굴로 노랑게 익은 모과나무를 올려다 본다.  
수미, 자신도 모르게 마당을 나가 철수에게 다가간다.  
수미가 나타난것도 못느낀채 여전히 모과나무만 바라보는 철수.

수미            모과네.  
철수            (힐끔 보곤 다시 꿈꾸듯 멍하니 모과 바라보는데)  
수미            모과꽃 본적 있어? 꽃말이 <평범> 이라고 하던데.  
철수            꽃말은... 서양 모과가 더 맘에 들더라.  
수미            뭔데.

철수 대답없이 아련한 얼굴로 모과를 바라보는데,  
그런 철수의 옆얼굴을 빼안히 보다가 뭔가에 홀린듯한 얼굴로 철수의 뺨에 입을 맞추는 수미. 놀라는 철수 고개 돌려 멍하니 수미 바라보면.  
뒤늦게 정신 차린 듯 수미, 마루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

#### #54. 달리는 고속버스 (2000년)

산악부 회원들, 거의 다 잠들어 있다.  
철수/수미, 나란히 앉아있다. 수미는 창밖 보고 있고 철수는 어색하게 애써 시선 피하며 앞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다 안되겠는 듯

철수            저기. 수미야.  
수미            (애써 담담히 철수 본다) 왜?  
철수            어제는 말야/  
수미            (어색하게 웃으며 말 끊는) 어. 어젠 술 너무 마셨나봐. 취했었어.  
나 뭐 실수같은거 한거 없지? 혹시 실수 했어도 선배가 이해해. 술 김이니깐!  
철수            어? ....어. 없었어. 그런거.  
수미            좀 자야겠다. 아직두 머리 아픈거 보면 술 덜 췄나봐. 나 잘게.

수미 창쪽으로 급히 고개 돌리며 눈 감는다.  
철수, 쓴웃음.

#### #55. 와인바 (밤)

실장            (고개 끄덕이며) 지금은?  
수미            오늘 아침.... 나보고 선을 보라고 하네요.

실장 그냥 무심히 한 말일수도 있잖아. 먼저 고백해봐. 그 사람두 수미썰 좋아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수미 두려워세요. 거절 당했을때 어떻게 될지....

실장 나... 애인 있어, 수미씨.

수미 (놀라 보면)

실장 지난번 북한산에서 봤지? 그 남자야.

수미 (고개 끄덕이는)

실장 그 사람두 나처럼 가정 가진 사람이야. 대학때 내가 짝사랑 했었는데 대학 사년내내 고백두 못하구 맘만 줄이구 있었어. 근데 얼마전 다른일 통해서 들었는데 그 사람두 날 그렇게 좋아하구 있었던거야. 나 그 사람 만나구 있거든. 근데 우리, 요즘 같이 만날때마다, 화가 나구 억울하단 생각을 가져. 우리 둘중 누군가 고백을 했었더라면. 그랬었더라면...

수미 전! 자신... 없어요.

실장 참 바보같다 수미씨. 사랑은 말야, 망설이거나 후회하는 그런게 아냐. 그냥 감정에 맡겨. 그 사람이 수미썰 받아들이지 않으면 힘들더라도 또 다른 사랑을 찾아보구. 언제까지 한사람만 받아 들이면서 해바라기 할래? 그 선택 때문에 수미썰 또 다른 사랑을 선택할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될거야. 한번 시도해봐.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내것이 아니구나 포기하구! 사랑은 뒤에 서는게 아냐, 그 사람 앞에 서는거야.

수미 ....

#### #56. 철수 집 거실 (밤)

컴퓨터 화면, 나무에 관한 영문 자료 펼쳐져 있다.

철수, 화면 바라보다 모니터 아래 놓여있는 워크맨에 시선이 간다.

생각난 듯 가방에서 건전지를 꺼내는 철수, 포장을 뜯고 워크맨에 건전지를 집어넣는다. 오래되서 상태가 좋지 않은 듯 잡음과 함께 숙자와 동환이 부르는 투투의 (일과 이분의 일) 이 희미하게 흘러 나온다.

#### #57. 오락실 (1994년 청원)

노래에 맞춰 DDR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동환, 영 발을 못맞추자 같이 올라가 춤을 추는 진성.

#### #58. 오락실 앞 (1994년 청원)

철수, 자전거 위에 앉아 워크맨으로 음악 듣고 있다.

동환/진성 오락실에서 나온다.

진성 아 정말...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 박치가 따로 없다니깐!

동환 니가 안껴들으면 더 잘할수 있었어 새까. 근데 뭐야 이 계집애 아직도 안왔네.

진성 왜 꼭 낄려구 하는지 몰러.

동환 몰러 그러냐 새까? (철수 고개짓 하며) 좋아 하잖나.

진성 철순 숙자 관심 없잖어.

동환 숙자만 관심 없냐. 아예 여자들한테 관심 없지 이 새끼. 저기 숙자 온다! 어? (놀라는)

보면, 숙자와 영희 나란히 자전거 타고 오고 있다.

진성 재 영희 아녀? 철수도 있는데.... 웬일이래?

음악 듣고 있던 철수, 역시 영희 발견하곤 놀라 이어폰 뺀고 바라보는데, 두 사람 곧 다가와 자전거 멈춘다.

숙자 안늦었지?

동환 그건 그런데... (영희 보면)

숙자 어. 아침에 영희 우리 집에 놀러 왔더라구. 내가 그냥 같이 가자구 데려왔어. 괜찮지?

동환 뭐 상관없어... (철수 본다) 근데...

철수, 영희와 시선 마주친다. 영희 쑥쓰러운 듯 고개 외면하면.

철수 담담한 얼굴로 자전거에서 내려온다.

숙자 너 그런데 무슨 노래 들어? (철수의 워크맨 이어폰 잡아당겨 귀에 꽂는다) 뭐여, 마법의 성? 너두 이 노래 좋아하냐?

철수 (놀라) 그럼 너 흑시?

숙자 흑시 뭐?

철수 아냐 아냐...

하다가 영희와 시선 마주친다. 외면하며 고개 돌리는 영희.

동환 뭐 그만길 좋아하냐. 노래는 모름지기 듀스지.

듀스의 (여름 안에서) 노래 부르며 춤 추면, 진성 같이 따라 춤을 춘다.

철수 (웃으며) 가자. (자전거 올라타며 숙자 본다) 넌 이제 괜찮아?



숙자            뭐?  
철수            석광렬 죽었다구 며칠동안 계속 울었잖아.  
숙자            아. (담담히) 괜찮아. (자전거 출발하며)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구  
언제까지 슬퍼할순 없잖어. 바꿨어. 이제 우리 오빠 차인표야.

철수, 달려가는 숙자를 보곤 핏 웃다가 역시 웃고 있는 영화와 시선 마주친다.  
당황해 웃음 멈추고 자전거 달리는 두 사람.

#### #59. 극장 (1994년 청주)

영화 라이언킹 상영되고 있다.  
철수를 가운데로 양쪽에 영화/숙자. 동환/진성 앉아있다.  
숙자, 철수 앞으로 팝콘 내밀면 철수 팝콘 집으며 슬며시 영화를 본다.  
영화, 화면에 몰입해 있는 얼굴이다.

#### #60. 노래방 (1994년 청주)

동환/진성 노래책 보며 노래 고르고 있다.

동환            (노래 고르며) 아, 돌아버리겠다, 숙자 계집애 땀에 (라이언 킹)이 뭐  
나 유치하게.  
진성            (역시 노래 고르며) 그래두 재밌었잖어. 지두 막 웃어놓고.  
동환            (스피드)를 봐야 하는건데.  
진성            산드라 블록? 아, 그 여자 눈썹이 그게 눈썹이나?  
동환            시끄러 새까. 우리 산드라 블록은 그게 매력이야. 너같은 촌놈이 뭘  
알겠냐.

철수, 혼자 들어오는 숙자를 보고 닫힌 문쪽을 보면.

숙자            (철수 표정 보곤) 영화 안갔어. 나보고 먼저 들어가래. 주인 아줌마  
랑 할 얘기가 있다구. 신경 쓰이면 먼저 보낼까.  
철수            어, 아냐!  
숙자            그래, 우리 다 친구잖아. (동환 노래책 뺏으며) 일절만 부르기다?

(듀스의 “우리는” 노래 따라 부르며 안무 흉내 내고 있는 동환과 진성)  
(투투의 “일과 이분의 일” 같이 부르고 있는 숙자와 동환)  
(진성 탬버린 치고 있고 철수와 영화 어색하게 앉아서 박수로 장단 맞춰주고 있다)  
(철수-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부르고 있다. 숙자 황홀한 모습으로 그런 철  
수 지켜보고 있고 동환과 진성은 못마땅한 듯 보고 있다.  
영화, 그냥 건성으로 노래책 뒤적이고 있는 모습)

(영화, 마이크를 들고 어색하게 서있다. 동환/진성 “노래해! 노래해!” 재촉하면  
영화, 잠시 망설이다 번호를 누른다. 철수 뜻밖인 듯 보는데.  
김광석의 “먼지가 되어” 자세 흐트러짐 없이 조용히 노래 부르는 영화.  
그런 영화를 지켜보는 철수)

#### #61. 철수 집 거실 (밤)

철수, 잠음쉬인 영화의 노래 끝나면, 워크맨 스톱단추 누른다. 궁금한 빛이 역력한.

#### #62. 철수 집 현관 앞(밤)

수미, 벨 누르려다 포기하고 그냥 서있다. 그렇게 한동안 서있다 발길 돌리는 수미.

#### #63. 호텔 커피숍

사람들로 붐비는 커피숍. 맞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수미, 무료한 표정으로 연신 티스푼으로 커피 떠마시고 있다.

민호            (싱긋 웃으며) 대단하시네요.  
수미            (동작 멈추고) 뭐가요?  
민호            티스푼으로 커피 떠마시는거요. 거의 다 비웠네요.  
수미            (커피잔 본다 자신도 우스운지 핏 웃으며) 그러네요.  
민호            아휴 번째 선이지만 티스푼으로 커피 한잔 다 비우는 사람은 침 봤  
거든요. 제가 맘에 안드십니까?  
수미            맘에 들구 안들구 그런 문제가 아니라... 빨리 결혼해야 할 상황이라  
고 들었는데요.  
민호            네. 할머니가 워낙 연로하셔서 집안에서 좀 서두르네요.  
수미            전 결혼에 대해 전혀 생각 해본적이 없거든요. 그냥 엄마 등살에 떠  
밀려 얼떨결에 나온것 뿐이지. ...죄송해요.  
민호            (웃으며) 뭐 신경쓰지 마세요. 저 역시 빠른 결혼은 가족들 바램이  
지 제 뜻은 아니니까요.  
수미            (고개 끄덕이며 둘러 보다가) 여긴 꼭 인력시장 같네요.(둘러보다  
시게 보곤) 나갈래요?  
민호            약속 있으세요?  
수미            술 잘 해요?  
민호            남들만큼은.  
수미            그럼 우리 술이나 마시러 갈래요? 이렇게 만난것두 인연인 것 같은  
데, 술친구 해줄수 있죠?.

#### #64. 사무실(저녁)

시게 보는 철수. 여섯시다. 핸드폰 꺼내 보턴 누르려던 철수, 망설이다 그냥 핸드폰

내려놓고 모니터로 눈길 돌린다. 그러나 화면과는 상관 없이 어딘지 초조해 보인다.

#### #65. 술집(저녁)

대중적인 호프집 정도. 초저녁이어서 그런지 한산하다.

민호           어제밤 꿈이 아주 좋아서 그런가. 이렇게 멋진 술친구도 생기네요.  
수미           (썩쓸한 웃음) 나무 좋아해요?  
민호           ?  
수미           난 나무 좋아하는 사람이 좋거든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해박하구 그런 거...  
민호           (알거 같다) 수미씨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가보죠?  
수미           (썩쓸히 웃으며 맥주 마신다)  
민호           (약간의 실망)  
수미           한사람을 혼자 해바라기 하구 있어요. 지난 몇년동안... 근데 도저히  
                그 사람 앞에는 서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람하구 같이 있을때  
                내 자린 항상 그 사람 뒤였어요....  
민호           (딱하다, 고개 끄덕이는)  
수미           (잔 비우곤 웃는다) 바보같죠?  
민호           네. 오늘 처음 봤을때 아주 야무지고 똑소리 나보였는데 이제 보니  
                정말 바보네요.  
수미           고마워요. 술친구 해줘서. (기분이 좀 풀린다. 웃는)

#### #66. 아파트 광장 (밤)

택시에서 나오는 수미와 민호.

민호           오랜만에 즐거웠습니다. 제가 연락하는건 부담스러워 하실거 같고  
                언제든지 수미씨 술친구나 대화 상대 필요 하시면 연락 주세요. 어  
                느 시간이건 어느 장소건 제가 바로 달려갈테니까.  
수미           (웃으며) 그러세요. 그런때가 되면 꼭 연락 드릴게요.

#### #67. 아파트 거실 (밤)

철수, 창가에 서서 아파트 광장을 내려다 보고 있다.  
택시 안에 오르는 민호를 배웅하는 수미 보인다.  
택시 출발하면, 수미 그 자리 서있다가 철수의 아파트를 올려다 본다.  
철수, 커튼 뒤로 몸을 숨긴다.

#### #68. 아파트 광장 (아침)

철수, 차에 오르다 뒤에 서있는 수미의 자동차를 본다.

무심한 얼굴로 잠시 바라보곤 차에 올라 곧 그 자리를 떠난다.  
잠시 후- 자신의 자동차로 다가오는 수미.

수미           (둘러보다가 혼잣말) 바쁜가....

#### #69. 식당

직원들과 점심 식사하고 있는 철수.

은숙           요즘 수미씨 얼굴 보기 왜 이렇게 힘들어요 통 볼수가 없네.  
해선           그러게. 무슨 일 있어요? 사장님! 옆집 사니까 잘 아실거 아니에요?  
철수           (밥 먹으며 담담히) 바쁠거야 지난번 선봬잖아.

은숙/해선, 놀라 철수 본다.

유현           수미씨 그럼 그 사람이랑 결혼 한대요? 그럼 사장님은요?  
해선           그러게.  
철수           영똥한 소리들 하지마. 우리 아무 사이두 아니라고.

그냥 무심한 얼굴로 식사하고 있는 철수.  
병쩨 표정으로 철수의 얼굴을 살피는 은숙 해선.

#### #70. 집근처 호프집(밤)

철수, 담담한 얼굴로 혼자 생맥주 마시고 있다.

#### #71. 그 앞 거리+차 안(밤)

운전중인 수미, 고개 돌리다 가게 창가에 앉아있는 철수를 발견한다.

#### #72. 호프집(밤)

어두운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철수.

수미           E           혼자 무슨 맛으로 술 먹고 있어?

철수 돌아보면 수미, 앞에 서있다.

수미           (앉으며) 아줌마! 나두 한잔 갖다 주세요!  
철수           어떻게 알았어 여깁는거?  
수미           지나가다 차에서 봤지. 선배 요즘 바쁜가봐. 아침에도 일찍 나가는  
                거 같더라. 왜 통 연락 안했어?

철수            니가 연락 없길래. 그 선본 사람이랑 잘되가는줄 알구. 명색이 선벤  
                 데 방해하면 안되잖아. 너 시집 보낼려면.  
수미            (그러면 그렇지. 실망. 가지고 온 맥주 한모금 마시곤) 그 편지 주인  
                 공은 어때? 테입은 들어봤어?  
철수            (무심히) 그냥 공테입이더라.  
수미            어... (고개 끄덕이며) 그 영화라는 애 말인데 내성적이라구 그랬지.  
                 사람들이랑은 잘 어울렸어?  
철수            글썄.... 어. 있었다. 단작 있었어. 숙자라는 애였지. 자리두 같이 앉  
                 았구. 아마 영화가 유일하게 얘기하는 친구였을걸.

### #73. 교실 (1994년 청원)

숙자, 영화와 웃으며 뭔가 얘기 나누다 고개 돌려 뒷자리에 앉아있는 철수를 바라  
본다. 책 보고 있던 철수, 고개 들다 두 사람과 시선 부딪친다.  
미소짓는 숙자. 그리고 셀쭉한 얼굴로 외면하는 영화.

철수    E            영화 늘 나만 보면 화를 내곤 했었어.

### #74. 학교 현관 (1994년 청원)

난감한 표정으로 비오는 운동장을 내다보는 숙자. 그러면서도 표정은 복도쪽을 바  
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다. 잠시후 철수 나오다 숙자 발견한다.

철수            왜 안가구 여겼니?  
숙자            우산, 우산 안가지구 왔거든.  
철수            그럼 같이 쓰고 가자.  
숙자            (환해지며)그래줄래?

철수, 우산 퍼려는데 소리

영화    E            숙자야.

두사람 돌아보면, 우산 두 개를 들고 복도에 서있는 영화.  
일그러지는 숙자.

### #75. 호프집(밤)

수미            혹시 사진 보낸 사람이.... 그 숙자라는? 그 애두 사진속에 있었어?  
철수            (웃으며) 아냐! 사진 찍어준 애지. 녀살두 많구 이렇게 숨어서 편지  
                 보낼 애가 아냐.  
수미            영화는? 그 애하곤 무슨 에피소드 같은거 더 없었어?

철수            그만하자 옛날 애긴.... 이번 선봤다는 사람하곤 잘 돼가?  
수미            친구 하기루 했어. 술친구!  
철수            술친구? 너답다! 자주 만나니?  
수미            세 번. 세 번다 술마시구 헤어졌지 뭐. 주로 나는 떠들구 그 사람은  
                 애길 들어주구 뭐 그래.  
철수            (고개 끄덕이곤) 참! 담주 토요일 나 청주 가기루 했다.  
수미            청주? 충청도 청주? (생각난 듯) 아, 선배 거기서 잠깐 살았대구 했  
                 었지. 근데 왜 가 거길? 연고도 없대구 했잖아.  
철수            그냥... 바람 쐬러.  
수미            바람쐬러 뭐 그렇게 멀리까지 가. 궁금 하구나? 편지 주인공.  
철수            맘대루 생각해라.  
수미            그럼 같이 가자. 나두 궁금한데. 나 가두 되지?  
철수            일박이일인데?  
수미            그게 무슨 상관이야? 참 내. 자신 없어 선배? 나하구 밤새는거?  
철수            짜식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내가 언제 너 여자루 본적 있었냐?  
수미            그렇지. (술 마신다)

### #76. 디자인실

원단 살피고 있는 수미. 전화벨. 핸드폰 꺼내는 수미. 번호 확인하곤

수미            네 민호씨. ....일요일이요? 물론 시간은 되지만.... 아침에 갔다 당  
                 일루요? 그래요. 시간 내도록 하죠. ...네. 들어가세요.(전화 끊으면)  
선배1            그 칼텍이지? 저녁에 뭐하러 올생각 해? 그냥 일박이일루 갔다 오  
                 지. 간김에 진도두 나가구.  
수미            아 증말 선배!  
선배1            나두 자기처럼 머뭇거리다 혼자 여기까지 왔다니까.  
실장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구 일들 합시다!

직원들 머쓱한.

### #77. 아파트 동 건물 앞

수미, 자전거 세워놓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자전거 라이딩복에다 헬멧까지 착용한 본격적인 트랙킹 차림이다.  
저만치 걸어오다 수미와 마주치는 철수

철수            (아래위 훑어보며) 뭐해 여기서? 그리고 그 차림샌.  
수미            (당황하는) 어? 어... 그냥. 선벤 일요일 아침부터 어디 다녀와?  
철수            사우나.

수미           그렇구나....  
철수           (자전거 보며) 어디 라이딩 갈려구?  
수미           어.  
민호 E       늦지 않았죠?

두 사람 돌아보면, 자전거를 타고 오는 민호, 역시 라이딩복 차림이다.

철수           (분다)  
수미           (두 사람 번갈아 보다가) 인사 하세요 민호씨. 여긴 제 대학 선배구  
                옆집 살아요. 그리고 민호썬....(애매하다)  
민호           (뭔가 알아차린. 넋살 좋게 웃으며) 아, 전 술친입니다. 김민호라고  
                하구요.  
철수           (넓은 미소와 함께 악수한다.) 김철수라고 합니다.  
민호           수미썬 좋겠어요. 든든한 선배님이 옆집 살아서.  
수미           (그냥 미소)  
민호           저보다 형님벌 되는거 같은데 앞으로 형님으로 부르겠습니다. 괜찮  
                으시겠죠?  
철수           (그냥 미소만)  
민호           혹시 자전거 좋아 하시면 언제 같이 라이딩 한번/  
수미           (말 끊으며) 선배 자전거 타는거 별로 안좋아해요.  
민호           아, 그러시구나.  
철수           (սսսս하지만 밝은 표정으로 수미 보며) 잘 됐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  
                두 맘껏 썩구 잘 다녀와.  
수미           (역시 짐짓 밝게 웃으며) 시원한 공기 조금 담아서 가져다 줄게.  
민호           (두 사람 표정 살핀다)

자전거에 오르는 수미, 가볍게 철수에게 목례하곤 그 뒤를 따르는 민호.  
철수, 답답한 얼굴로 달려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바라본다.

#### #78. 운동장 농구 코트 (1994년 청원)

반코트 농구를 하고 있는 동환과 철수. 그러나 철수에게 번번히 막혀 골을 넣지 못  
하는 동환. 그에 비해 철수는 펄펄 나는듯한 분위기.

진성           (지켜보다 코트 들어와 농구공 가로채며) 관뒀라 관뒀. 동환이 넌 철  
                수한테 쟁도 안된다 임마.  
동환           하, 새끼. 밥먹구 농구만 했나버.

철수, 씩 웃곤 수돗가로 향한다.

진성 동환 뒤따라 간다.

진성           뭐하나 이기는게 읊나 넌. 공부도 그렇구 농구도 그렇구.  
동환           아, 열받아. (툴툴대다 생각난 듯) 있어. 저 새끼 누를수 있는거!

#### #79. 수돗가 (1994년 청원)

아름드리 은행나무 아래 학교 수돗가.  
철수 씻고 있는데 진성 동환 다가온다.

**화면- 나무 뒤에 숨어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카메라 시점으로.**

진성           아, 너 동환이가 판결루 도전 하겠다는데?  
철수           (동환 보며)  
동환           자전거! 자전거 어쩌냐. 이따 수업 끝나고 학교에서 연제리 모과나  
                무까지.  
철수           (씩 웃는)

#### #80. 몽타쥬 (1994년 청원)

(전속력으로 자전거를 달리며 교문을 빠져 나가는 동환/철수)  
(한적한 국도를 달려가고 있는 동환/철수. 앞서거나 뒤서거나)  
(멀리 모과나무 보인다. 있는 힘을 다해 속도를 높이고 있는 동환/철수)

#### #81. 연제리 모과나무 (1994년 청원)

온통 땀투성이. 먼저 들어오는 철수. 도착하자마자 자전거 그대로 눕혀놓고 잔디밭  
에 널부러져 거친 숨을 쉬고 있다. 올려다 보는 시선으로 노랗게 익은 모과들이 보  
이는데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내려다 보는 숙자.

숙자           웬일이니 철수 너?

철수,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어나 앉아 숙자를 본다.  
저 쪽 풀밭에 앉아 이어폰으로 음악 듣고 있는 영화 보인다.

철수           니들 왜 여겼어?  
숙자           너하구 나, 우리 인연인가 보다. 영화가 오늘 갑자기 여기 모과 따  
                러 오자구 해서 왔는데 이렇게 너 만날줄 누가 알았니?

철수, 영화 본다. 영화, 무심한 얼굴로 음악 듣고 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동환, 뒤늦게 광장으로 들어선다.

## #82. 아라 서해 갑문 선착장.

두 사람, 자전거 세워두고 벤치에 앉아 물 마시며 쉬고 있다.

민호 수미씨가 애기한 사람. ....아까 그 분이죠?  
수미 (대답없이 곁에 서있는 노랑게 물든 은행나무 바라본다) 은행나무... 색깔 참 곱게 졌네요.  
민호 (외우듯이)대단한 나무죠. 세계적으로 은행나무과는 오직 은행나무 한종만이 있을 뿐이고 공룡이 살고있던 시대부터 이 땅에 외롭게 살고 있는 화석 나무입니다. 정코민이라는 혈액순환 촉진성분이 발견되어 약품화 되어 팔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나무만 유효성분이 많아 수지탄산이 많고 또 암나무와 숫나무가 따로 있는데 암나무는 암꽃이 열매를 맺고 숫나무에는 숫꽃이 피고 열매가 없지요. 하지만 암꽃 혼자 결실을 볼수가 없기 때문에 근처 어디선가 숫나무가 꽃가루를 날려보내야만 수분이 가능한 나무죠.  
수미 (놀라 보면)  
민호 수미씨 나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공부좀 했거든요  
수미 시간 많이 투자 했겠네요.  
민호 건 아니구 은행나무만 외웠어요. 요즘에 나가면 지천으로 흔한게 노랑게 물든 은행나무잖아요.  
수미 실망 했네요. 그 말은 차라리 안들었으면 좋았을텐데.  
민호 (기분 좋게 웃으며) 제가 원래 이래요. 옛날부터 시험 볼때도 너무 오버 하다가 제 점수 깎아 먹은게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그 왜 사족이라는 말 있잖아요. 뽕꼬리까지 쓸데없이 그렸다는. 그런 경우죠.  
수미 (일어나며) 담엔 모과나무로 부탁할게요.  
민호 모과나무? 하필이면 왜 모과나무입니까.  
수미 (웃으며 자전거에 올라탄다)

## #83. 인수봉

(암벽을 타는 철수)

(정상- 무심한 시선으로 저 아래를 내려다 보고 있는 철수)

## #84. 고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철수의 자동차

수미 E 네. 고마워요, 전화줘서. ...그러죠, 안부 전할게요. 그럼 담에 뵈요.

## #85. 달리는 차 안

수미 (핸드폰 끄며 담담히) 안부 전해 달라구 하네요.  
철수 (운전하며) 좋은 친구 같아.  
수미 (쓸쓸히) 맞아요, 좋은, ....술친구야.

한동안 말없이 침묵.

수미 도착하면 뭐 할거야?  
철수 학교 들렀다가.... 뭐 특별한 계획은 없어. 그냥 여행하는 기분으로 가는거야.  
수미 그 편지 주인공은?  
철수 (그냥 웃는)  
수미 (생각난 듯) 거기 청주 들어가는길, 가로수길 있잖아. 거기 혹시 지나쳐?  
철수 그쪽으론 안가는데. 왜?  
수미 꼭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  
철수 그럼 들렀다 가지 뭐. 시간 많은데.

## #86. 가로수 길

가을이 한창인 가로수길. 차에서 내리는 두 사람.

수미 너무 좋다. 나 어렸을 때 영화 만추 보고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 여기.  
철수 (웃는데)  
수미 저기봐. 웨딩 촬영 하나봐.

가로수 길 한편 - 야외촬영을 하고 있는 신랑신부.

수미, 부러운 빛으로 지켜보고 있고, 철수 긴가민가 표정으로 촬영기사를 주시하고 있다. 넉넉한 몸집의 숙자(36), 이리저리 신랑신부의 포즈를 잡아주다 이쪽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철수를 발견한다. 고개 갸웃하며 바라보다 신랑신부에게 손짓으로 양해를 구하곤 철수 쪽으로 다가오는 숙자.  
철수, 한눈에 숙자를 알아보고 미소 짓는다.

숙자 혹시, ....철수?  
철수 (웃으며) 장숙자!  
숙자 맞구나 맞아. (꺼안으며) 이게 얼마만이야? (얼굴 보며) 많이 컸네. 꼬맹이가.  
철수 (웃으며) 야, 내가 크게 아니라 니가 몸이 푸짐해진거야. 임마  
숙자 (웃다가 철수 뒤에 엉겨주춤 서있는 수미 발견하곤) 그런데...?

철수 (돌아보며) 아, 대학 후배야. 인사해 수미야. 여긴 중학교 동창이구  
이쪽은 대학 후배.  
숙자 (힘차게 악수하며) 반갑습니다. 철수랑 참 잘 어울리네요.  
수미 (애매한 웃음) 안녕 하세요.  
숙자 결혼식 촬영은 내가 공짜루 해줄테니까 날만 빨리 잡으세요.  
수미 (웃는다. 싫지는 않은)  
철수 그런게 아니라니까? 단순한 선후배 사이야.  
수미 (쓸쓸한 웃음)  
숙자 (그 표정 봤다. 철수 보며) 뭐 그렇게 정색을 하며 말을 하나? 사람  
무안하게. 그나저나 지금 어디 가는거야?  
철수 오송.  
숙자 우리 중학교 있는데? 거긴 왜?  
철수 그냥. 여행.  
숙자 언제 올라갈건데?  
철수 널.  
숙자 잘됐네. 이따 술 한잔 하자. 난 촬영땀에 저녁에나 시간 있거든.  
(수미 보며) 괜찮겠죠?  
수미 (고개 끄덕이며 웃는데)  
숙자 (웃다가 코 찢룩거리며) 향수... 모과향이죠?  
수미 네.  
숙자 좋다. 내 아는 옛날 친구도 항상 모과향이 났었는데.  
수미 (숙자 보는데)

#### #87. 중학교 교정

전형적인 시골 중학교 모습. 텅 빈 운동장에 이리저리 굴러 다니는 낙엽들.

수미 아담하네.

감회어린 얼굴로 학교를 둘러보는 철수. 철봉대에 매달려 보기도 하고, 수돗가로 걸  
어가 수도를 틀어 보기도 한다.  
사진속에 나왔던 은행 나무를 발견하는 수미.

수미 저 은행나무, 사진에 나온거 맞지?

은행나무로 걸어가는 두 사람.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잎을 올려다보는 철수.  
수미, 팔을 벌려 나무를 안아본다. 그러나 두 팔로 모으기에는 턱없이 굵다.  
수미 손가락을 벌려 한뼘한뼘 재보다가 갑자기 재는것 멈추고 어느 한부분을 유심  
히 살펴본다.

수미 이것봐 선배.

철수, 나무 뒤쪽으로 와 가리킨 곳을 살펴본다. 누군가 칼로 새긴 글자들.  
철수+영희

수미 영희 아닐까?

철수 (묘한 눈길로 새긴 글자들 보다가 고개 흔드는) 그때 이런 장난, 애  
들 흔하게 했어.

일어나 교실 쪽으로 걸음 옮기는 철수. 수미, 왜 저럴까 표정.

#### #88. 교실

뒤쪽 앉아있는 철수. 그리고 중간쯤 앉아 뒤돌아 보고 있는 수미.

수미 그러니까 선배는 그 자리 앉았었구 영희라는 애는 이쪽에 앉아있었  
겠네?

철수 (약간은 신경질적인) 자꾸만 영희하구 결부 시키지 말라니까.

수미 (보다가) 선배 이상하다.

문 열리며 여교사 들어온다. 이미 중년을 넘긴 자상한 얼굴의 선생님.  
일어나는 두 사람.

여.선 누구신가들?

철수 (인사하며) 여기 졸업생입니다 선생님. 아직도 계시네요. 안녕하셔어  
요?

여.선 (살펴 보다가) 혹시 김...철수 아니었나?

철수 (놀라며) 어떻게 질 기억하십니까? 선생님반두 아니었는데.

여.선 당연히 기억하지. 철수와 영희니까!

철수 (웃는데)

여.선, 의아한 눈길로 수미 보면

철수 대학 후배입니다.

수미 (목례하면)

여.선 (웃으며 인사 받곤) 영희는 잘 지내?

철수 네?

여.선 영희하구 결혼한거 아니었어? 청침장 학교로 온거 같았는데. 가보진

못했지만.  
철수 (웃으며) 에이 선생님두. 저 영희랑 그런 사이 아닙니다. 영희가 저  
되게 싫어한거 아시잖아요?  
여.선 (고개 저으며) 아니지, 오히려 그 반대지.

철수/수미, 뜻밖의 말에 의아한.

#### #89. 운동장 (1994년 청원)

46# 의 운동회 모습. 여자 선생님의 시점으로-

철수와 함께 2인3각으로 달려오는 영희, 1위로 결승점을 통과하는 두 사람.  
영희에게서 종이를 받아 확인하는 선생님.  
쪽지에 선명히 적혀있는 글씨 <담임 선생님>  
간절한 눈빛의 영희와 잠깐 시선 마주치는 선생님,  
곧 환하게 웃으며 영희와 철수의 손을 들어준다.

#### #90. 술집 (밤)

수미 (술잔 비우곤) 왜 그랬을까..... (표정은 다 알고 있다)  
철수 (술잔을 비우곤 강하게) 그래두 영희는 아냐!  
수미 (의혹) 무슨...일 있었어? 영희씨하구?

철수, 수미 보는데 입구 쪽에 친한 사이인 듯 주인 아줌마와 왁자지껄 인사 나누며  
들어오는 숙자와 동환 보인다. 곧 철수 발견하고 다가오는 두 사람.  
철수, 웃으며 다가오는 동환을 보고 긴가민가 하는데

숙자 동환이, 신동환 기억하지?  
철수 (반가운) 동환이! 오랜만이다 진짜.  
동환 짜식. 어떻게 연락두 없었냐 그 동안.

포옹하는 두 사람.

숙자 (앉으며) 야 야. 앉어 앉아.

두 사람 여전히 반가와 하며 앉으면.

숙자 여기 이 분은 철수 대학 후배란다 동환아.  
동환 안녕 하세요. 철수 중학교 동창입니다.  
수미 안녕 하세요.

핸드폰 올리면 전화받는 숙자.

숙자 (통화하는) 어, 김태희.  
동환 애 딸이야. 김태희 닮았다고 이름 똑같이 지었는데 생긴건 영락없는  
지 엄마야.

수미/철수 웃는.

숙자 (통화하는) 얼마 누구 좀 만나고 늦을거야. ...지넹? 아빠랑 치킨 시  
켜 먹던가. ..뭐? 싫대? 와서 밥 차려 달래? (벌컥하는) 그럼 굶으라  
구 그래! ...그래. 엄마가 오매불망 그리던 짝사랑 하던 사람 왔는데,  
오늘 안들어갈지도 모른다고 그래. 끊어! (전화 끊으면)

철수/영희 놀라 본다.

숙자 ! 왜? 왜 그렇게 보세요?  
철수 (맥주 따라주며) 너 나한테 최근에 편지 보낸적 있었니?  
숙자 (받아 마시며) 무슨 소리야?  
철수 나 짝사랑 했다면?  
숙자 (웃으며) 야 그거야 옛날 얘기지. 나두 결혼한 몸이다. 너하구 무슨  
불륜 저지를일 있냐?  
철수/수미 (실망)  
숙자 그래두 나 너 되게 좋아 했었다? 영희 땀에 두 번 다 기회 놓쳤  
지만.... (웬지 침울해지는)  
수미 ? 영희라는 분땀에 기회 놓치다니요?  
숙자 (침울함 지워내며 크게 웃는다)

#### #91. 교실 (1994년 청원)

73# 과 같은 상황.

숙자, 책상에 엎드려 있다. 영희, 그런 숙자 달래주고 있다.

영희 아직 멀었잖아. 십이월에 간대 군대.  
숙자 (엎드린채) 그래두... 우리 인표 오빠 군대 가면 무슨 낙으로 사냐구.  
영희 ....(한심한)

숙자, 그렇게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고개 든다.

영희 ?



숙자            그래. 사랑은 가까운 곳에서 찾아야 돼!

숙자, 고개 돌려 좀 떨어진 뒷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는 철수를 본다.  
영희, 같이 철수를 바라보곤.

영희            재?

숙자            (철수 흘끔거리며) 분위기 있잖아.

영희            애는! 재가 무슨?

숙자            난 이름때에 철수라면 뭐든지 싫어하는 애잖아. 하여간 오후에 비온  
                 났으니까 해볼거야.

영희 다시 고개 돌려 철수 본다.  
그러다가 눈 마주치면 썩썩하며 시선 피하는 영희.

숙자            (손거울 꺼내 얼굴 보며) 나, 가만히 보면 고소영 닮지 않았니.

## #92. 학교 현관 (1994년 청원)

기내에 들뜬 얼굴로 우산을 펼치는 철수를 지켜보는 숙자.  
순간 뒤에서 소리.

영희    E        숙자야.

두사람 돌아보면, 우산 두개를 들고 있는 영희.

영희            너 우산 두고 갔어.

숙자            (얼굴 일그러지고)

## #93. 술집(밤)

숙자            (웃으며) 첫번째 시도는 그렇게 끝났지 뭐.

철수            (쓴웃음)

수미            (알 것 같다) 근데 그 영희씨라는분 결혼 했어요?

동환            하긴 했었죠....

철수            ?

수미            했었다면....?

숙자            (어두운 얼굴로 술잔 비우곤) 죽었어. 계집애.....

철수/수미 놀라 보면

숙자            한달정도 됐어. 개 몸 원래 약했잖아. 기억 안나? 졸업식날두 아파  
서 간신히 나왔잖아. 고등학교때두 등학교길에 가끔씩 내가 자전거  
태워줬었구..... 계집애, 그렇게 허망하게 갈려구 나무가 되구 싶다구  
했나봐. 그것도 웬 모과나무...

철수            (본다)

수미            모과나무요?

숙자            우리 중학교때 언젠가 나의 희망 발표한적 있었잖아. 그때 영희가  
자긴 아무 희망두 없다구 그런거, 기억 나니? 내가 꿈두 없다구 고  
등학교때두 이따금씩 놀렸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러는거야.

## #94. 연제리 모과나무 (1994년 청원)

영희, 숙자 자전거 뒷자리에서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영희            잠깐 서봐.

숙자            (멈추면)

영희            (모과나무 보며) 너 내가 꿈도 없다구 맨날 놀리는데 나 결심했다!

숙자            ?

영희            나무가 되기로 했어.

숙자            그렇게 어딴냐?

영희            좋잖아, 언제 가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구... 저 모과나무면 좋  
겠어. (모과나무 가리키며)

숙자            하필이면 몇백년된 저 모과나무니. 니네집 모과나무 많으면서.

잔잔히 미소 띠며 모과나무 바라보는 영희.

## #95. 술집(밤)

술병 많이 비워져있다.

철수, 영희의 죽음이 충격이었던 듯 뭔가 생각에 사로잡힌 얼굴.

수미            (철수 보다가) 선배 장래 희망 뭐라구 했었어 그때?

숙자            나무 의사였지 아냐.

수미            !

동환            참 묘하네. 그렇게도 철수 싫어했는데 나무가 되구 싶어 했다니.

철수            (술잔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수미            저기, 아까 가로수 길에서 말씀하신.

숙자            네?

수미            항상 모과향이 난다던 그 친구가 혹시...?

숙자            네 영희예요. 개네 과수원에 모과를 많이 심어서. 놀러가면 항상

집안에 모과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거든요.  
수미 (쓴웃음 짓는다)  
철수 여전히 생각에 잠긴)  
수미 (그런 철수 헐끗 보곤) 저, 아까 두 번 시도 했다가 영희씨땀에 기회  
다 놓쳤다고 했잖아요. 두번째는 뭐였어요?  
숙자 (철수 보며) 너 영희하구 주변인적 있었지? 그거 원래 나하구였어.  
철수 (고개 들고 숙자 본다)

#### #96. 연제리 모과나무 근처 (1994년 청원)

숙자, 놀란 얼굴로 자전거 멈추고 영희 본다.

숙자 안돼, 나 철수 좋아 하는거 알잖아? 그러구! 너 철수라면 끔찍해 하  
면서 일주일 어떻게 같이 지낼려구.  
영희 할수 없지 뭐. 하여간 이번주에 니가 주변 해줘. 너 할때 내가 해줄  
게. 바꾸자 응? 우리 과수원 이번주 모과 따야 돼서 증말 바쁘단 말  
야. 해주라 응?  
숙자 (난처한, 그러나 벌써 반송낙한 얼굴이다)

#### #97. 교실 (1994년 청원)

칠판 한쪽 구석 <주변 철수 + 영희> 써있다.  
아이들 킁킁거리며 웃고 있다.  
영희, 모르는척 고개 숙인채 책 보고 있다.  
숙자, 안스런 얼굴로 영희 보면서도 카메라를 들어 칠판에 써있는 글씨를 사진으로  
찍어 놓는다.  
들어오던 철수, 칠판 글을 발견하곤 둘러보다 낄낄거리고 있는 동환에게 달려간다.

동환 뭐야 새까. 나 안그랬어.

철수, 동환 먹살 잡고 주먹 날린다.

동환 너 내 글씨 아직도 몰려? 나 아니라니깐!

철수 아랑곳 않고 동환 때리는데.

숙자 (걱정되는) 어떡하니 영희야. 재네들 싸워.

영희, 놀라 고개 든다. 걱정스러움과 미안함이 섞인 얼굴이다.

영희,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는데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기침.

점점 기침이 심해지며 소리 커진다.

쓰러져있는 동환의 얼굴을 때리려던 철수, 영희의 기침소리 들었다.

돌아보는데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철수의 얼굴을 가격하는 동환.

다시 동환 아래 깔리는 철수.

영희의 고통스런 기침 소리에 반격은 안하고 영희쪽 바라보면.

동환 역시 뒤늦게 영희의 기침소리 듣고 동작 멈춘다.

숙자, 그런 영희를 바라보며 어쩔줄 몰라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영희를 바라보는 철수.

#### #98. 술집(밤)

숙자/동환. 철수에게 배달된 사진 들여다 보고 있다.

숙자 이거 내가 찍은 사진인데.

동환 우리 이런 시절두 있었구나.

수미 그 사진 누구누구 가지고 있었어요?

동환 뭐 애 혼자 가지고 있었겠쥬. 찍기만 하구 뽑아주진 않았으니깐.  
하여간 장숙자 진짜 구두쇠였어.

숙자 야, 대신 니 결혼식때 특별히 싸게 찍어줬잖아. 근데 이상하네. 이  
사진 나 혼자 가지고 있었는데.

수미 영희씨하고 두 분이 친했다면서요. 그럼 혹시 영희씨가 놀러 갔다가  
가져 갈수도 있잖아요.

숙자 그럴수도 있었겠네. 옛날 사진 보러 자주 우리 집에 놀러왔었으니  
깐.

동환 그럼 영희가 이 사진 가져가서 보관하고 있다 이번에 철수한테  
보냈다는 거야? 에이 설마. 영희가 철수 싫어했다는거 우리 반 다알  
고 있었는데.

철수 (뭔가 의심스런 표정)

숙자 (잠시 생각하다가)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상한 점이 있긴 있었  
어. 영희하고 철수 니네들 이상하게 엮였었지? 옛날 니네들 연제리  
모과나무 까지 자전거 경주 할 때 그때두 그렇구.

#### #99. 교실 (1994년 청원)

영희, 치마 한쪽 부분, 젖은 손수건으로 문지르며 들어오고 있다.

숙자, 음악 듣다 이어폰 빼내며

숙자 왜 이렇게 오래 걸렸니, 닦았어?

영희 어. 일단 수돗가 가서 닦아내긴 했는데.

숙자 지지배 조심쥬 하지. 칠칠치 못하게 반찬을 흘리고 그러냐.

영희           그러게. 그런데 우리 오늘 수업 끝나고 연제리 안갈래? 모과 따러  
가자.  
숙자           (귀찮은) 뜬금없이 웬 모과야 싫어. 난 바루 가서 (종합병원) 녹화  
해논거 볼거야. 우리 구분승 오빠 봐야돼.  
영희           또 바꿨어?  
숙자           생각해 보니까 나 여태까지 너무 터프한 남자들만 좋아한거 같애.  
                좀 지겨워졌어. 시스터보이 같은 남자도 좀 좋아해줘야 하는데.  
영희           숙자야 그러지 말구 어?  
숙자           귀찮아 싫어.  
영희           오늘 내 말 들어주면 나 담주에 청주 시내 나갈일 있는데 그때 구  
분승 브로마이드 잔뜩 사다줄게.  
숙자           ! 진짜?

#### #100. 연제리 모과나무 (1994년 청원)

영희, 누구를 기다리는 듯 자꾸 도로쪽 바라보고 있다.

숙자           야, 다 따갔나봐. 높은데밖에 없어. (영희 왔다) 너 누구 기다려?  
영희           어? 아니 내가 누굴 기다려. 기다리긴.  
숙자           근데 왜 자꾸 저쪽 길만 쳐다 보고 있어?  
영희           아니... 그냥. (얼버무리는데)

멀리 아득하게 도로를 달려오는 철수.  
그 뒤쪽 좀 쳐져서 뒤따라 오는 동환 보인다.

동환   E       그럼 그때 우리가 자전거 경주 하는거 영희가 알고 있었다는거야?  
                어떻게? 우연이겠지.  
숙자   E       우연치곤 좀 그렇잖아. 니네들 기다리는 것처럼 오나 안오나 도로쪽  
                쳐다보고 있었던것도...  
동환   E       그때 영화 그거 뒀었더라... 맞아! 청주 시내에 라이언킹 보러 갔을  
                때 그때?  
숙자   E       그것두! 사실 내가 그날 니들하구 영화 보러 간다는거 영희두 알고  
                있었거든.

#### #101. 숙자 방 (1994년 청원)

영희, 방에 들어온다. 나름대로 수수하게 멋을 부린 사복 차림이다.  
조각케익 내미는 영희.

영희           어제 동생 생일이었거든. 아빠가 케익 너무 큰거 사왔길래... 너 케

익 좋아하잖아.

숙자           어머나 고마운 넌. 이 언니 뭇까지 챙겨오다니.  
영희           (웃으며) 됐어. 참! 오늘 그것좀 보여줘. 나 지난주 종합병원 못봤거  
든. 너 그거 비디오 녹화 해냈다고 그랬잖아.

숙자, 케익 생크림 손으로 찍어 먹다가 곤란한 표정 짓는다.

숙자           (난처한) 어떡하니. 나 오늘 철수 개네들이랑 청주 나가서 영화 보기  
로 했어.  
영희           아 참! 그런다구 했지. 깜빡 잊어 버렸어.  
숙자           너두 같이 갈래?  
영희           ....  
숙자           철수 땀에 그래? 뭐 그냥 말 안하면 되잖아.  
영희           (망설이던)  
숙자           (영희 팔 잡아끌며) 영희야~ 가자~

#### #102. 술집(밤)

숙자           지금 생각해 보니깐 잊어 버렸단 말, 거짓말 이었던거 같애.  
철수           (숙자 본다)  
수미           (쓸쓸한 미소) 영희씨라는 분 철수선배 참 좋아했나봐요.  
숙자           그런건가... 나두 좀 혼란스럽네.  
철수           (말없이 술잔 비운다)

#### #103. 거리(밤)

숙자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깝다, 이차 가면 좋을텐데.  
철수           자주 내려올게.  
동환           너 정말 그래야 된다? 나이 들수록 동창들밖에 생각이 안나더라.  
철수           (웃으며) 우린 걸어가면 숙소 금방인데. 너 어떻게 하니?  
숙자           나두 걸어가면 금방이야. 수미씨 같이 자주 내려 오세요.  
수미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철수           간다.

네사람 서로 인사 하고, 철수 걸어가려는데

숙자           철수야.  
철수           (돌아보면)  
숙자           (성큼 걸어와 철수 어깨 감싸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데려간다).  
철수           ?

숙자 수미씨 잡아. 너 무지하게 좋아 하는거 같더라.  
철수 (또 그 소린가? 그냥 미소)  
숙자 나중에 후회하지 말구!

약간 떨어진곳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고 있는 수미.

#### #104. 다른 거리(밤)

두 사람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 말없이 각자의 생각에 골몰한 듯.  
그러다 길가에 심어진 모과나무를 발견하는 수미.  
수미, 멍하니 바라보다가.

수미 여긴 모과나무가 참 많네.  
철수 .....

수미, 길 가에 놓여있는 벤치에 앉는다.

철수 숙 안좋아?  
수미 아니, 그냥... 잠시 앉았다 가자.  
철수 약 사올게. 오늘 좀 많이 마셨잖아.

철수, 걸음 옮기려는데.

수미 선배!  
철수 (돌아보면)  
수미 왜 그랬어?  
철수 ?  
수미 동아리 가입하라고 했을 때 이유가... 내가 모과향이 나서 그랬다고  
했잖아. 왜 그랬어?  
철수 .....  
수미 그리고 또... 아주 오래전 선배, 모과꽃 꽃말 얘기 했을 때, 서양 모  
과 꽃말이 더 맘에 든다고 했잖아.  
철수 ....  
수미 나 찾아 봤었어. 유일한 사랑, ...이더라.

철수 무심한 얼굴로 수미 멍하니 바라보다가 돌아서 좀 떨어진 곳에 약국 간판을  
발견하곤 그 쪽으로 걸음 옮긴다.

그런 철수의 뒷모습 허탈하게 바라보다가 핸드폰 꺼내 버튼을 누르는 수미.

수미 나예요 민호씨....

#### #105. 호텔 방 (아침)

철수, 의자에 앉아 깜빡 잠이 들었던 듯 고개 떨구다 깨어난다.  
환한 새벽, 철수 시계를 본다. 일곱시. 철수, 핸드폰 들고 전화를 걸어본다.  
전화기가 꺼졌으니 메시지를 남기라는 멘트.  
무슨 일일까 잠시 생각하다 손을 뻗어 수화기를 든다.

소리 F 네, 프론트입니다.  
철수 육백이호실 부탁 합니다.  
소리 F 아, 같이 온 여자분이요? 한시간 전쯤에 체크 아웃하고 나가셨습니  
다. 손님에게 먼저 올라간다고 전해 달라는 말씀 남기셨는데요.

철수, 수화기 내려놓고 생각하는.

#### #106. 달리는 차 안.

고속도로를 달리는 민호의 자동차.  
수미, 쓸쓸한 얼굴로 지나치는 풍경 바라보고 있다.  
그런 수미를 바라보는 민호의 연민 섞인 눈빛.

민호 (운전하며) 눈 좀 붙여요. 어제밤 잠 못 잤다며.

수미, 민호를 본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시선.

#### #107. 호텔 앞

철수, 자동차 앞에 서있다. 사진 묶음을 건네주는 숙자.

철수 (받아들며) 뭐야.  
숙자 너 받았던 편지... 그거 영희가 보낸거 확실해.  
철수 (믿기지 않는다)  
숙자 어제 집에 가서 옛날 사진을 들춰봤었어. 내가 너 몰래 니 사진 많  
이 찍었었거든.

사진 보는 철수,  
동환과의 싸움때 뒤쪽 배경에 흐릿하게 걱정스런 얼굴로 서있는 영희.

숙자 E 너 있는텐 늘 보이더라. 그것두 항상 니 뒤에.

철수 뒤에 영희 서있는 소풍 단체 사진,  
친구들과 사진 찍는 뒷배경에 서서 늘 철수를 바라보고 있는 영희의 모습.  
칠판에 써있던 <영희+철수> 의 클로즈업 사진.  
꽃다발을 들고 부모님과 찍은 철수의 졸업식 사진. 뒷 배경으로 희미하게 철수를  
바라보고 있는 영희.  
그리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는 철수의 뒷배경에 무언가 할말이 있는것 같은 얼굴로  
서있는 영희.

숙자 (사진 보며) 그거 졸업식때지? (한숨 쉬며) 계집애, 그날 졸업식 끝  
나구 병원 실려 갔었잖아.  
철수 ?  
숙자 넌 모르겠구나. 바루 서울로 올라갔으니까. 열이 펍평 올라서. 뭐?  
그 전날 그냥 밖에서 밤새 눈 맞았대나.... 엉뚱한 계집애야....

놀라는 철수.

#### #108. 달리는 차 안.

연제리 목과공원 근처. 철수, 운전하고 있다. 의혹의 얼굴이다.

숙자 E 그러구 내가 깜빡 했었는데 영희 신랑 이름이...

저만치 <목과공원> 보인다.  
철수, 힐끗 보곤 그냥 지나친다.  
백밀리로 멀어져 가는 <목과공원>  
철수 뭔가 생각하다 유턴해 다시 갔던길 돌아온다.

#### #109. 목과공원 앞.

차에서 내리는 철수,  
새롭게 깔린 신도로를 멍하니 바라보는데.  
그 도로가 1994년 당시의 도로로 천천히 변하며  
저만치 중학생인 철수(16)와 영희(16)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것 보인다.

#### #110. 국도 (1994년 청원)

109# 이어지며 자전거를 타고 오는 철수와 영희.  
영희 뒤를 천천히 뒤따라오고 있는 철수,  
어느 순간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는 영희.  
철수 놀라 자전거에서 내려 영희에게 뛰어온다.

철수 괜찮니?  
영희 (일어나지 못하고 까진 무릎을 가린다)  
철수 손 치워봐.

영희 손을 치우고 무릎을 살펴보는 철수. 빨갛게 까져있는 무릎.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뒷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는 철수, 상처를 호호 분다.  
바로 자신의 얼굴 아래 있는 철수의 귀를 보는 영희.  
손수건으로 영희의 무릎을 정성스레 묶는 철수.  
그러다 문득 시선 마주치는 두 사람.  
얼굴이 빨개지는 영희. 철수 얼굴 역시 붉어져 있다.  
철수의 손을 조용히 밀어내고 일어나는 영희.

철수 절을수 있어?

고개 끄덕이며 다시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는 영희. 난감한. 자전거 핑크 나있다.

#### #111. 연제리 모과나무 부근 (1994년 청원)

영희를 뒤에 태우고 한적한 길을 달려오는 철수.  
두 사람 다 긴장한 얼굴이다.  
도로가 울퉁불퉁해 자전거 흔들리면, 영희 망설이다 철수의 허리에 손을 감는다.  
놀라는 철수, 하지만 서서히 얼굴에 미소가 어린다.  
영희 역시. 조금씩 미소.  
멀리 모과나무 보인다..

철수 저기서 쉬었다 가자.

#### #112. 연제리 모과나무 (1994년 청원)

두 사람, 모과나무 밑동에 말없이 앉아있다.

철수 (망설이다) 이번주 힘들었지? 나하구 주변해서.  
영희 (얇은 미소)

철수, 그런 영희 바라 보다가 얼굴 마주치자 황급히 시선 돌린다.  
영희 역시 놀라 시선 돌리고.  
잠시 침묵. 그러다가 동시에 입을 연다.

영희/철수 저기.

당황해 입을 닫는 두 사람.

철수 (그러다) 먼저 말해.  
영희 ...너, 자전거 잘 타더라.

말하고는 쑥스러운 듯 입 다물면.

철수 (잠시 보다가) 너두 그랬어. 넌 자전거 탈 때... 참 이뻐어.  
영희 (얼굴 빨개지는)  
철수 그리고... 이 말 하고 싶었는데... 나 너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3학년 처음 시작 되던날.  
영희 (보면)  
철수 자전거 타고 내 옆을 지나갔는데 너한테서 모과 향기가 나더라. 오늘도 내 뒤에 탔을 때 그때처럼 모과 향기가 났구.  
영희 ....  
철수 차암 좋더라...  
영희 (보일락 말락 희미한 미소)  
철수 (그런 영희 보다가 강물로 시선 돌리며) 이제 얼마 안남았지?  
영희 (보면)  
철수 내, 이름 때문에 너 힘든거.  
영희 .....  
철수 저기...  
영희 (보면)  
철수 난 말야... 너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내 이름이, 철수라는게... 흔한 철수라는 이름이 올해는... 싫지 않았어.  
영희 (약간 놀랐다가) 저기 나도/  
철수 (말 끊으며) 미안해...

영희, 뭔가 대답 하려다 갑자기 기침 시작하는데 쉽게 멈추지 못한다.  
걱정스레 바라보는 철수.  
그렇게 한참을 기침 하다 간신히 멈추는 영희.

철수 괜찮니?  
영희 어... 나 원래 어려서부터 이래.  
철수 모과차 좋다던데.  
영희 어?  
철수 기침할 때, 모과차가 좋다고 그러더라 울 엄마가.

말하곤 쑥스러운 듯 고개 돌리는 철수.  
영희, 철수의 옆모습 불안히 바라보다가

영희 서울엔 언제 올라가?  
철수 (의외인 듯) 알고 있었니?  
영희 어.  
철수 졸업식날, 식 끝나고 바로 올라갈거야.  
영희 (고개 끄덕이는)  
철수 (망설이다) 이런말 하면 어떨지 몰라두 난, ...영희 너랑 친해지구 싶었어. 넌 물론 싫었겠지만...

영희 당황한, 그러나 순간적이지만 아주 미묘한 설레임 같은 표정.

철수 서울에 올라가서두 연락.... 계속 하고 싶어.

영희, 빨개진 얼굴로 고개 숙인채 일어난다.

철수 화났니?  
영희 나 갈게. (달려간다)  
철수 (그 뒤를 향해) 졸업식 전날 기다릴게. 여기서!

철수, 미소띤 얼굴로 멀어져가는 영희를 지켜본다.

### #113. 목과공원.

철수, 쓸쓸한 얼굴로 모과나무 바라보고 있다.  
한참을 그렇게 모과나무를 바라보다 곁에 정자를 보는 철수.  
정자에 올라간다.  
정자 안에서 누군가 이젤을 받혀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  
노래를 흥얼거리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남자. 김광진 <마법의 성>이다.  
철수, 의아한 얼굴로 남자를 보는데.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보는 남자.  
철수와 눈 마주치자 노래를 멈추고 가볍게 목례한다.  
철수 가볍게 같이 목례하곤 정자를 둘러본다.  
그러다 정자 한켠에 남자가 가지고 온듯한 보온병을 발견한다.

### (1#에 나왔던 철수의 파란색 보온병)

철수, 의아한 눈빛으로 보온병을 바라보는데

철수2 E 죽은 제 아내가 아끼던 보온병입니다.  
철수 (돌아보면)

철수2 (그림 그리면서)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얼굴로 저 모과나무 아래 앉아있는 아내를 처음 만났죠. 인사를 하고 내 이름을 밝히자 아내는 한동안 날 물끄러미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우린 사랑에 빠졌고 곧 결혼 했습니다.

철수 (고개 끄덕이며) 보온병... 꽤 오래된거 같네요.

철수2 아내 말로는 중학교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랍니다. 거기다 모과차를 담아서 여기 나와 마시는걸 좋아했었어요.

철수 이쁘네요.

철수2 아직 남았을텐데 한잔 드시겠어요? 제가 따라 드리려 해도 (물감 묻은 손 보이며) 손이 이래서.

철수 감사 합니다.

철수, 모과차를 한잔 따라 마시려다가 보온병 바닥에 써있는 철수+영희를 발견한다. 가만히 바라보다 문득 생각난 듯 갑자기 주머니에서 숙자에게 받은 사진중 하나를 꺼낸다. 철판에 써있던 <주변 철수+영희> 의 사진.

누가 봐도 똑같은 글씨체.

철수, 착잡한 얼굴로 사진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바람에 흔들리는 모과나무를 바라본다.

#### #114. 강변

흐르는 강물을 따라 떠내려가는 사진들.

철수, 강변에 서서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다. 편안한 미소.

#### #115. 아파트 복도

수미 집 초인종 누르는 철수, 반응 없다.

#### #116. 사무실

수화기 들고 있는 철수. 지금 거신 번호는 결번이라는 메시지 흘러 나온다.

고개 갇웃하며 다시 전화 거는 철수.

하지만 여전히 결번이라는 메시지.

철수, 잠시 생각하다 서랍을 열고 명함들을 뒤적이며 뭔가 찾는다.

해선 사장님 뭐 찾으세요?

철수 어. 수미 회사 전화번호.

은숙 핸드폰은요.

철수 바꿨나봐.

해선 헐~

수미의 명함을 집어들고 전화를 거는 철수.

철수 네. 디자인실 이수미씨 부탁 합니다.

해선, 은숙 이게 뭔 상황이야 표정으로 얼굴 마주본다.

#### #117. 디자인실

원단을 살피는 수미, 울리는 전화벨, 수미 전화 든다.

수미 네 이수미입니다. (놀라는,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는듯한 얼굴, 담담히) 네 선배. 오랜만이에요. ...전화요? 잃어버려서 바꿨어요. .... 여름상품 때문에 요즘 바쁜데... 아, 당분간 집에 일이 있어서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연락 할게요 선배.

전화 끊는 수미,

서글픈 빛으로 전화 바라보다가 각오를 다지려는듯 굳은 얼굴로 다시 원단 살핀다.

#### #118. 북한산 인수봉

암벽을 오르는 수미.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암벽을 타고 마침내 정상에 오르는 수미의 여러 모습들.

정상에 올라 두 팔을 벌리고 눈을 감는 수미. 그 위로

수미 E 선배, 선배의 숨결이 느껴져.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선배의 숨결을 느끼는 일은 없을거야. 지난 십년동안 선배 그렇게도 좋아했던 내 감정, 나! 여기 두고 가요. 여기 놓고 가니까 언젠가 선배 여기 올라오면 찾을수 있을거야. 아니, 여길 수십번 올라온다 해도 선배 아마 못찾을걸. 선배 확실하고 보이는것만 믿는 사람이니까. 고마웠어 선배. 힘들었지만 뒤에서 선배 지켜보는거 늘 즐거웠어. 잘 있어 선배....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은채 바람을 맞는 수미.

#### #119. 철수집 현관

덜 깬 얼굴로 문을 여는 철수, 수미 서있다.

작업복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수미.

수미 (씩씩하게) 뭐야 선배, 또 술 마셨어?

철수 (무슨 영문인지 몰라 뻘뻘 보다가 곧 웃는, 반갑다) 아침부터 웬일이



야. 들어와.  
수미 시간 없어 나.

철수, 무슨 일인가 현관 밖 복도로 나간다.

#### #120. 복도

열려진 수미 집 현관문. 이사짐 나른 흔적으로 어수선한 복도.

철수 ?  
수미 나 이사가.  
철수 (가슴 철렁 내려 앉는다)  
수미 속 시원하지?  
철수 (빠안이 본다)  
수미 있을때 잘하지, 나 가구 나면 후회할걸?  
철수 (여전히 보는)  
수미 (아래 가리키며) 짐 다 실었어. 갈게 선배.

수미. 환하게 웃으며 돌아선다. 썩썩한 걸음.

철수 뉘뻘진 사람처럼 잠시 서있다가 수미 뒤를 따라간다.

#### #121. 아파트 광장

수미, 이사짐 차에 오르려는데.

철수 잠깐만 수미야.  
수미 (돌아 보면)  
철수 (뭔가 말하려다 차마 말 못하고) ...향수 바꿨구나.  
수미 (쓸쓸한) 누군가한테 허상이 되고 싶진 않아.  
철수 (무슨 뜻인지 안다. 고개 끄덕이며) 할 말이 있어.  
수미 윈데.  
철수 옛날부터 이 말 하고 싶었는데/

수미의 핸드폰 벨 울린다.

수미 잠깐만. (핸드폰 받는다) 아 민호씨. 이제 출발 할려구요. ...네?  
우리 집에 벌써 도착해 있대구요?  
철수 (실망하는)  
수미 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요. 다 실었으니까 지금 바로 출발  
할게요. (통화 끝내고) 가야겠다 선배. 짐 내려줄려고 기다리고 있

대. 무슨 말인지 몰라도 답에 해.  
철수 (짐짓 웃으며) 어 그래그래. 답에 하지 뭐. 가.

수미, 미소 짓곤 차에 오른다. 출발하는 트럭.

철수, 회한과 서글픔이 혼재한 얼굴로 망연히 서있다.

#### #122. 술집 (밤)

확자지결한 술집. 산악회 동아리 회원들의 모임.

철수 (들어오며) 많이들 왔네.  
회원들 (어서 와라. 등등 인사)  
회원2 예비 신분 왜 안오냐?  
철수 (앉으며) ? 나?  
회원1 저거 시침 떼는 것 봐. 이수미 말야 이수미 결혼 한단 소문 있던데  
너하구 결혼하는거 아냐?  
철수 (무슨 얘길 하는건지 표정)  
회원2 끝까지 시침 떼네. 수미가 너 좋아한거 다 아는 사실인데.  
회원1 그래서 짐두 니네 옆집으로 옮긴거 아냐?

회원들, 그러게 그러게, 그렇지 등등 동조.

철수 말이나 되는 얘기 해라. 무슨 수미가 날 좋아 한다구.  
회원2 저거 바보 아냐? 옛날 너 추락 사고 났을때 이 수미 그 말 듣고 얼  
굴 하얗게 질리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졌었어 임마.  
철수 (놀라 얼굴 멍해진다)  
회원1 왜 저래 재?  
철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럼!)

#### #123. 건물 옥상 정원

철수, 커피잔 들고 멍한 얼굴로 생각에 잠겨있다.

뽀로통한 얼굴의 해선. 안절부절 하며 뒤따라 오는 유현.

유현 해선씨.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해선 그게 근사하다구요, 박주임님?

나무에 가려 철수의 모습은 보이지를 않는다.

해선 세상에 무슨 그런 최악의 프로포즈 할 생각을 다해요? 미리 알았으

유현            니까 망정이지 진짜 사람 많은데서 쪽팔릴뻔 했네.  
해선            아니, 영화에서 보면 야구장 전광판 통해서/  
                  (말 끊으며) 그건 영화니까 그런거구. 됐어요!  
유현            그럼 해선씨가 원하는 프로포즈 애길해봐. 내가 그렇게 해줄께.  
해선            (어이가 없는) 아 증말, 돌아버리겠다. 그걸 내 입으로 얘기하라고  
                  요?

두 사람 얘기 듣고 있던 철수, 문득 생각난 듯 몸 돌려 옥상 입구로 급히 걸어간다.  
깜짝 놀라는 두 사람.

해선            사장님 아니에요 지금?  
유현            어.  
해선            어떡하지?  
유현            뭐 어때요. 어차피 다 알게 될건데....

#### #124. 주얼리 샵.

반지를 고르는 철수.

#### #125. 레스토랑(밤)

두 사람, 찻잔, 앞에 놓고 앉아있다.

철수            언제 집에 들어가니까?  
수미            몸은 편한데 스트레스는 장난 아니네.  
철수            어머니 땀에?  
수미            어. 아무것도 못한다구 시집 가서 어떡 할거냐구.  
철수            (웃는)  
수미            일찍 퇴근해서 음식 배우래. 나 참. 시집간 내 친구들 보면 닥치면  
                  다 잘만 하더라.  
철수            음식 못하면 어때. 사다 먹으면 되지.  
수미            그렇지? 선배도 그렇게 생각하지? 민호씨도 그러더라고.  
철수            아직도 그 친구 만나나봐.  
수미            (본다)  
철수            (테이블 아래 주머니에서 반지케이스 꺼내는데)  
수미            (애매한 얼굴로 철수 보다가) 저기 선배.  
철수            어.  
수미            (백에서 흰봉투 꺼내 테이블 위로 건네준다)  
철수            뭐야?  
수미            청첩장.

철수            ! (빠안히 본다)  
수미            날 잡았어. 민호씨랑.

철수, 반지 케이스를 슬며시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고 천천히 봉투를 들어 청첩장을  
꺼낸다. 민호와 수미의 결혼식 청첩장.  
떨리는 손으로 청첩장을 살펴보다 애써 미소 짓는 철수.

철수            잘 됐네. 정말 잘 됐다. 그 친구라면 너 행복하게 해줄거야.  
수미            (սսսս히 웃으며) 그렇지? 선배도 그렇게 생각하지?  
철수            당연하지.

애써 미소 지며 차 마시는 철수.

#### #126. 몽타주(밤)

(술집- 술잔 비우는 철수)  
(거리- 쓸쓸히 밤거리를 걸어가는 철수)  
(아파트 동 입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편지함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는 철수.  
발신인 이수미 라고 쓰여있다.)

#### #127. 거실(밤)

철수, 책상 앞에 앉아 봉투를 뜯는다. 열어보면 사진 몽치다.  
산악부 동아리 시절의 사진들-  
철수 뒤에 서있는 수미. 다른 사진들 역시 하나같이 철수 뒤에 서있는 수미,  
아니면 철수를 지켜보고 웃고 있거나,  
눈 휘둥그레지는 철수, 이제야 알 것 같다. 눈물과 함께 허탈한 웃음.

#### #128. 미장원

머리를 다듬고 있는 철수,  
서글픈 미소로 거울속의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미용사            다 됐습니다 손님. 원하시는 대로 결혼식 치르는 새신랑처럼 다듬었  
                  는데, 어떠세요. 맘에 드세요?

#### #129. 결혼식장

(수미, 민호의 결혼식. 결혼식장의 여러 모습들 몽타주)  
(신랑신부 서있고, 친구들 하나둘씩 사진 찍으러 신랑신부 옆으로 그리고 뒤쪽으로  
자리한다. 사람들을 헤치고 수미 뒤로 자리잡는 철수, 수미 문득 돌아보다가 뒤에  
서있는 철수와 시선 마주친다. 가슴 아프지만 환하게 웃어주는 철수. 수미 놀라 보

다가 서글픈 미소로 대신한다. 그 화면에서 사진 찰칵)

**#130. 연제리 모과나무 (1994년 청원)**

화면 1#과 이어진다. 담담한 얼굴로 영화(16)를 기다리는 철수(16)

조금 떨어진 곳에 몸을 숨긴채 내리는 눈을 맞으며 철수를 지켜보는 영화.

일어나는 철수, 품에서 보온병을 꺼내 나무 밑동에 살포시 내려놓고 곧 그 자리를 떠난다. 눈위에 남겨진 철수의 발자국.

그 발자국을 밟으며 천천히 모과나무 아래로 다가오는 영화.

철수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다가 보온병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열어본다.

모과차다. 따라마시려 뚜껑을 열다가 무슨 생각인지 다시 뚜껑을 닫는 영화,

보온병을 품에 안는다.

그렇게 보온병을 품에 안고 눈을 감는 영화.

한가득 미소를 띠운채 내리는 눈을 얼굴에 맞는다.